

복음의 사람,
BLESS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Begin with Prayer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Listen with Care 경청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Eat Together 사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Serve with Love 섬김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Share your Story 전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물대풍산

The Well-Watered Garden

Vol.101 | 2023. 04. 교회창립 130주년 기념호

교회 창립
1893년 4월 22일

창립

130주년
기념의 해





BLESS
더욱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발행인 박창운
지도목사 임병철
부장 양홍철
부부장 박문호
총무 이상원
회계 양선미
편집장 양홍철

편집위원

스튜디오
편집장

김승훈, 김원진, 박현아
안주현, 이영숙, 이우형
이주하, 최무진, 허균열
우제오, 박효운
안지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화 (053) 253-2615 ~ 7
팩스 (053) 253-2618
주소 대구시 중구 국제보사로
102길 50 (동산동)
발행일 2023. 04. 16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메일 fch_pub@naver.com

물대동상

통권 제101호
The Well-Watered Garden

창립130주년 기념 특집

여는 글	04	내 기억 속, 역사를 마추한 몇 순간들!
창립 130주년 기념	06	박창운 위임목사 교회창립 13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09	이승환 장로 교회 창립 130주년 축하의 글
	10	허승부 목사 교회 창립 130주년 축하의 글
	11	곽희주 목사 선교지 키르기스스탄의 현황보고
	13	김보현, 박소연 선교사 네팔 심탈리 진척 현황
	15	김정근 선교사 대구제일교회 초기 당회록 편역 및 발간
	18	임병규 장로 우리교회에서 분립 · 개척한 교회(2)
	23	권오현 은퇴장로 대구제일교회 10년의 행진 2013년~2022년
	36	교회창립 130주년 기념 역사기록 2023년도 교육부서 지도선생님

소통의 장

신임 교역자 소개	47	신임 교역자 인터뷰 최성민 전도사
목양부	48	주님의 손에 빚어져간 나 김민정B 집사
	49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조인지 집사
새가족부	50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51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김도근 성도
	53	삶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나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최진훈 성도
교육부	56	초등1부 _ 겨울 성경학교
	57	초등2부 _ 봄 성경학교
	58	중등부 _ 겨울 수련회
	59	청년부 _ 겨울 수련회
	60	고등부 _ 겨울 수련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임이삭 고등부 회장
소개	62	홀리클럽(Holy Club)을 아시나요? 엄기정 은퇴장로
제일소식	63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살과 신앙

우리 결의 이단	70	2023년, 이단들의 진화하는 포교전략과 대응 방안 [1] 탁지원 소장
신앙강좌	75	이단을 이기는 기독교 교리 [1] 성경론 장규현 목사
	78	알면 도움 되는 기독교 교파 이야기 [1] 서성준 목사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83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338장
5분 독서코너	84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신앙간증	86	나의 신앙 여정 이동필 협동장로
	90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김홍석 은퇴집사
	92	과거는 미래에 의해 다시 쓰인다 [2] 윤지현 청년1부 회장

크리스천 문화

공연소개	94	우리지역 문화 · 공연 활동 소개
건강칼럼	95	성인 예방 접종률의 실제 박문호 안수집사
신앙수필	97	'쇼생크 탈출'은 구원인가 이주하 협동장로
시	100	고맙고 고마베라 허정자 권사
세대 간 소통	101	우리 교회 주변 핫플레이스 소개 [1] 김원진 청년



대구제일교회
박 창 운 위임목사

내 기억 속, 역사를 마주한 몇 순간들!

(교회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며)



(사진 1 / 주님이 걸어가신 길)

깨어진 아스팔트지만, 고고학을 전공하는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십중팔구 주님은 이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이라 장담한다. 옆에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왔음직한 여인숙의 폐허가 보이고, 그 길을 다시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유대 광야의 거친 모양새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아마도 주님께서 흙먼지를 덮어쓰며 이 길을 걸었으리라 되뇌는 순간, 환상인지 아니면 나의 상상인지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석양에 비친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내 눈길을 스쳐 지나갔다. 어느 미국교회의 성지순례단을 모집한다는 글귀에 쓰인 "Walk where Jesus walked"를 읽은 연후로 한 번 더 오고 싶었던 곳에 내가 서 있다.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있다. "저 흙먼지 휘날리는 주님의 길에 나도 서 있으리라!"

역사의 자리에 서 본다는 것은 전율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한 번은 보름스에 간 적이 있다. 아니 시간만 난다면 몇 번이고 가고 싶은 곳이었기에 이후로도 기회를 내어 간 곳. 여기엔 종교재판을 앞두고 루터가 당도한 곳이며,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 현장엔 아무것도 없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듬어진 몇 조형물을 제외하고는, 그때의 루터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거룩한 상상력은 예전에 읽어 놓았던 루터의 글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 글이 이 공간을 만나 전율을 일으킨다. "나 또한 개혁의 자리에 서 있다!"



(사진 2 / 루터의 역사적 자리)

웨일즈 아주 외딴곳에 그토록 존경하던 분의 묘지가 있다. 부고의 소식을 들었지만, 가볼 수도 없



(사진 3 / 존 스토틀의 무덤)

고, 간들 뽕족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멀리서 그저 그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를 안아주신 주님을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그의 묘지에 가, 꽃이라도 바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 작고 좁은 길을 따라 몇 시간이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차를 몰고 가서야 만난 그의 묘. 우리 주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쳤던 사람, 그래서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로새겨준 사람. 지금껏 책을 많이도 읽었다. 청년 시절엔 새벽기도를 가시던 어머니가 연신 책을 그만 읽으라고, 신혼 때에는 아내가 책을 그만 읽으라고, 여기에선 또 다른 이유에서 책을 그만 읽으라던 소리를 들을 만큼 정말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책 중에 한 권만을 택하라면 난 주저 없이 그의 책 한 권을 고른다.

The Cro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번역된 탁월한 책. 그의 묘지 앞에서, 이미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있는 그를 향하여 말했다. "Uncle John, 당신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년 전,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 아담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갔다. 주일 예배에 맞추어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가능하다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름답게 장식된 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 온전히 다 알아들은 것은 아니지만 좋았던 담임목사님의 메시지, 친절히 교회를 안내해 주던 장로님들. 그대의 교회가 파송해 준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만큼 그들이 아담스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선조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 대구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음에 함께 즐거워하던 순간.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이렇게 많은 이들을 살린답니다. 그대 교회의 파송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사진 4 / 토피카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

역사엔 지워지지 않는 나이트들이 숨어있다. 우리 교회도 130년을 지나며 숱한 나이트의 굴곡을 역사의 자락에다 새겨 넣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때로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그래서 130주년 기념을 한다는 것은 역사를 정리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향하여 달리는 의지가 재현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우리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며 자랑스러워하고, 아꼈던 과거를 다시 치유하며 품고 가며, 오늘까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남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간다. 소망한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노고가 우리 후손들의 아름다운 과거, 감사의 날들이 되길 소망한다. 내가 우리가 역사를 만날 때마다 감사의 말을 되뇌는 것처럼... **불편동상**

교회창립 13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승환 장로¹⁾

사랑으로

교회창립 130주년을 맞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베어드 선교사와 그의 선교적 헌신이다. 우리 교회의 설립뿐 아니라 부산에서 시작된 그의 선교 여정은 서울을 거쳐 평양까지 이르게 되었었고, 1931년 장티푸스에 걸려 69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일제하의 어둠 같았던 조선 땅에 비춘 하나님의 작은 등불이었다.

오래전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새 친구들을 맡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었다. 그 때 그들과의 첫 만남, 우리들의 대화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의 바람은 1900년이 지나 마침내 조선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 그 큰 사랑을 한 번도 눈물 없이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벽 안의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해졌었고, 지금 나를 통해 마침내 너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많은 아이들이 감동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

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고 말하며, 또 이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고 말씀하심이 어찌 이 낯선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나아온 선교사들을 떠올리게 하지 못하겠는가?

“믿음으로 베어드는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이었을 때에 부산을 떠나 청도 팔조령을 넘어 마침내 대구읍성에 이르러 전도지를 나눠 주었으며, 믿음으로 아담스는 남성정교회(대구제일교회 옛날 명칭)를 맡아 담임하며 계성 학교와 동산의료원을 세워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육하기에 힘썼더라... 믿음으로 브루엔은 대구제일교회를 담임하며, 신명 학교를 세우고, 경북서부지방에 57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믿음으로 최재화 목사는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헌금을 모금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상근 목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구약 성경을 주해하여 후학들을 가르쳤다....”

한두 줄로 끝내기에는 행과 간 사이에 숨어

1) 1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장, 당회서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많기에, 또 이들 외에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이들이 너무나 많기에 자꾸만 가슴이 벅차오른다. 흐른 세월의 시간만큼이나 역사가 되어 기억 속으로 사라진 것만 같은 수많은 기도와 믿음의 역사, 그 아름답던 사랑의 수고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으며, 한마디 말이나 한 줄의 글로 스쳐 지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조그마한 열정과 개혁의 시도들이 조금씩 모여서 우리의 역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던 원로장로님의 이야기가 자꾸만 귓전에 남아 맴돈다. 신천과 금호강이 휘감아 130년을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믿음의 유산과 발자취들, 팔공산과 비슬산만큼이나 쌓인 기도와 전도, 충성과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동산에 서게 한다....

소망으로

베어드와 아담스 선교사가 이 동산에 서서 성읍을 내려다보며, 꿈꾸었을 비전을 우리도 품고, 그들이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자리를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 오늘 우리 모든 회중이 그들과 함께 서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민들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부르짖어야 할 것만 같다. 그래야 머잖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면이 설 것 같고, 또 시간이 흐른 뒤 우리를 이어 나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정신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서 공유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 서 있으며, 또 장차 그들처럼 증인이 되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130주년을 맞으면서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로 모인 것은, 우리가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두 가지 일들은 이미 진행 중이며, 결실을 앞두고 있다. 그다음 중점으로 진행한 일은 130년사(年史) 출판을 준비하는 일과 초기 당회록을 편역하는 일이었다. 130년사(年史) 출판은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해를 넘겨야 하지만, 다행히 초기 당회록을 편역하는 일은 결실을 보아 곧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행사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된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우리 주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념하는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불평동상

* 뒷면 표 참고

창립 130주년 기념의 해

130주년 기념 사업 목록

구분	주요사업계획/일정	담당/부서	준비 및 진행상황
선교	국외교회개척	해외선교부	네팔지역 헌당, 키르기즈스탄 진행중
	해외선교사 파송	해외선교부	23년 12월 양인모 부목사 몽골파송
예배	기념예배	예배부	4/16일(주일) 오후예배
	찬양CCM콘서트	본교회 4개 찬양팀	4/23일(주일) 오후예배(청년부, 중고등부와 함께)
전시 및 강연	홍보영상 제작	영상통신부	교회소개와 역사
	홍보전시회	영상통신부	22년 1, 2차 전시 23년 3차, 4차 전시
	대구기독교역사관 탐방	대구기독교역사위원회	신청시 상시운영(해설: 임병규/ 권오현 장로)
	기념품제작	총무부	기념머그컵, 타올 등
친교	잔치한마당	여전도회	4/16일 주일 먹거리, 나눔거리
	홈커밍데이	총무부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은 교역자 초청
	아담스선교사 후손 초청	대구기독교역사위원회	교회방문, 예배참석(4월말)
	아담스파송교회 관계자초청	대구기독교역사위원회	토피카장로교회 담임목사 초청설교 (5/28일 3부예배)
기념 서적 출판	초기 당회록 번역 및 발간	임병규 장로	출간완료
	아담스선교자료 연구	대구기독교역사위원회	영남신학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중 (23년 12월경 연구완료 예정)
	교회130년사 편찬	130년사편찬위원회	24년 발간 예정
기념	제일순례길 조성 및 선교이정표 건립	13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본교회 기여한 인물과 사역을 기념 (장기계획)

교회 창립 130주년 축하의 글



허승부 목사¹⁾

대구제일교회가 창립 13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인의 삶이 어려움과 감격의 연속이듯이 교회의 발자취도 감격과 어려움이 이어질 터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됨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가정은 대구제일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대구로 이사 와서 부모님은 종로의 세탁소 뒷방에 삶의 터전을 잡으셨고 제일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이듬해에 이상근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이상근 목사님의 은퇴 4년 전에 부목사로 청빙을 받고 목사님 가까이에서 목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구는 삼덕교회 홍대위 목사님, 남산교회 조성암 목사님, 대봉교회 박맹술 목사님, 서문교회 이성현 목사님이 시무하시면서 남한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시간에 철저한 분이셨으며 정말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전도사님이 매일 아침 9시 경건회를 드리는데 자주 5~10분 늦기 일쑤였습니다. 보다 못한 이상근 목사님이 어느 날 여전도사에게 “O전도사 내가 시계 하나 사줄까?” 하

시니 그 전도사님이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 시계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 뜻을 깨닫고 고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실수를 이런 덕담으로 고치시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1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수많은 교훈과 미담이 온 도성과 이 나라와 세계에 흘러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의 진원지가 되는 교회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에게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불행동상



1) 영주제일교회 원로목사, 1987년 ~ 1991년 우리교회 부목사로 시무

교회 창립 130주년 축하의 글



곽희주 목사¹⁾

영남의 모(母) 교회 대구제일교회의 창립 1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893년 4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Rev. William Martyn Baird)가 약전골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국가적 상황과 형편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고종의 아관파천, 농민반란 등으로 나라가 극심한 혼란기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구 약전골목의 서민들에게 다가온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살아야 할 소망이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대구제일교회 부목사로 시무할 때 어느 집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간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초창기 교회 때 약전골목에 전하여진 복음을 받은 어느 성도님은 시장에서 야채를 팔다가 날이 어둑어둑하여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마당에 손수레를 세워놓고 찬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곤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시기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잘살게 되었고 또 자자손손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시더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렇듯 초창기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서러움도 받았지만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더니 오늘날 4대, 5대까지 믿음의 복을 받은 가문들이 되었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껏 대구제일교회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축사를 쓰고 있는 저도 1994년 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약

9년 동안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대구제일교회 부목사로 9년을 섬기면서 훌륭하신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가르침과 또 훌륭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증거와 간증들 역시 저를 많이 성장시켰으며 목회의 자양분 되어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영남에 어머니 교회로서 수많은 교회를 잉태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해 왔고, 지금도 오가는 수많은 사람이 높이 세워진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은혜주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힘을 얻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대구제일교회가 130주년의 창립기념을 맞았으니 전통은 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며, 미래는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온갖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마치 큰 바다 같은 교회,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비행기들이 앉고 뜨고, 수많은 배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항공모함 같은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렐동상



1) 상주교회 원로목사, 1994년~2002년 본교회 부목사로 시무

[대구제일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사업 : 국외교회개척(1)]

키르기스스탄개척교회 현황보고

대구제일교회 협력선교사

키르기스스탄 김보현¹⁾ 박소연 선교사



김보현 선교사



박소연 선교사

대구제일교회 설립 130주년을 축하합니다.

1893년 미국 북 장로교회 베어드 선교사님에 의해 대구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였고, 그 떨어진 복음의 씨앗으로 대구에 하늘의 생명을 주셨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아름다운 대구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립 130주년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대구제일교회에는 큰 기쁨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귀하게 쓰임 받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설립 130주년을 맞아 선교지 키르기스스탄에 키르기즈 민족을 위해 교회를 세울 수 있도

록 교회가 결정하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키르기스스탄에 세워질 교회도 대구제일교회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이 배출되며 키르기스스탄을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구제일교회의 협력 선교사임에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감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상황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러시아 가정이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해 오는 바람에 월세(최소 600\$) 및 주택 값이 두 배로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키르기스스탄으로 넘어오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선교사 가정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러시아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많이 유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외국인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가정

1) 대구출생. 충신신대원졸업(2001년, 94회). 현재 GMS 목사선교사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교사역 중

이 여파로 종교기관들도 불시검문 및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사택도 교회 서류가 등록되기 전에는 지하교회 형태로 큰 문제 없이 활동을 했는데, 교회 서류를 사택으로 등록한 이후 교회와 사택을 분리하지 못한 관계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종교기관에서 불시에 사택을 찾아와서 저희가 선교사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현장 목격을 위해 자주 확인하러 오고 압박하는 바람에 교회 서류에 본인의 이름이 등록된 현지 성도도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하여 어린이-청소년사역 등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어린이-청소년 사역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집을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 돈으로는 다른 집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현재 비어있는 동료 집으로 2개월 임시 월세로 옮겨와 지내며 어린이-청소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다시 월세를 얻어 나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월세를 잘 구해 나가도록 그리고 사역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칸트지역 예배당 건축상황

수도 비시켈 부동산이 두 배 오르니, 칸트도 두 배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매물도 적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칸트를 다니며 예배당으로 쓸만한 건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배당으로 쓸만한 건물을 보아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던 위치에 있으며 예전에 가구를 조립하던 작은 건물입니다. 모퉁이에 있는 건물로 이웃 주택과 맞붙어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어 예배당

용으로 좋아 보입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건물 이어서 집 주인이 세금 문제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돕고 있으며 시간이 한두 주쯤 걸릴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건물을 구입하여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 불평등상



칸트 류다밀라 가정



칸트 아이들



비시켈 어린이-청소년사역

[대구제일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사업 : 국외교회개척(2)]

대구제일교회 130주년 기념교회 (네팔 심탈리) 진척 현황



김정근 선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대구제일교회가 네팔에 파송한 김정근 선교사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대구제일교회 130주년 기념 교회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160km(2시간) 거리에 있는 SIMTHALI 지역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심탈리교회는 다당지역 개척교회 13개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 번에 많은 교인이 세례를 받고 열심히 모여 50명~80명이 앞마당이나 소 외양간 2층의 임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올곧게 드리는 예배 장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위 시멘트 공장 2천명 직원에게 전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힌두 국가인 네팔에서 심탈리 교회는 복음 전파와 유치원과 같은 교육활동 및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탈리 교회 건축 공정은 90%가 진행되었으며 10일 후에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협조로 주위의 조경과 교회로 올라가는 길을 정비하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한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건축은 다당지역 중심 멀리꾸교회 꾸마르 목사(49세)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당지역 13개 개척 교회 중 6개 교회 건축을 하였고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 지역에서 신학생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심탈리교회 헌당식이 4월 1일 오전 11시에 (한국시간 14시 15분 시작, 시차 3시간 15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 4월 6일까지 이곳 심탈리 교회와 네팔 밀알학교(장 애아학교, 카트만두 김정근 선교사 선교 센터)에서 의료 선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양인모 임병규 신동태 우극현 송근배 엄기정



건축중인 심탈리 교회

이기덕 이주원 전용철 권명자 정현주 11분이
바쁘신 중에도 경비를 들여 네팔에 오시게 됩
니다. 이번 선교 과정이 은혜롭고 순직하게 진
행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심탈리교회 헌당 후 꾸마르 목사가 교회 지
도를 잘하겠지만, 이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심탈리교회
리더가 예배를 인도하고 주기적으로 목사님들
이 설교와 목회를 도울 것입니다. 꾸마르 목
사의 아들이 네팔 장신대 3학년인데 담임 목
회자로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년 동
안 왕래하면서 목회 훈련을 하고 세워갈 것입
니다. 신학교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십시오.

교회 가까이 있는 시멘트 공장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힌두의 나라 힌두 인들에게 전도하
기 위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
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이나 문화의 중심 역
할의 방법으로 우선 가장 필요한 유치원 교육
을 교회에서 시작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
다.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접촉
점이 생기고 전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교사
양성과 운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며 좋은
생각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
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림동상



심탈리 교회 (1)



심탈리 교회 (2)



심탈리 교회 (3)

[대구제일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사업]

대구제일교회 초기 당회록 번역 및 발간



임병규 장로¹⁾

할렐루야! 대구제일교회의 당회록을 번역할 기회를 부족한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제일교회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본 당회록을 발간하고 모든 분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 당회록을 대하였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짙은 군청색의 두꺼운 표지 안에 있던 붓글씨로 쓰인 ‘第一禮拜堂 南城町堂會錄’이란 글자에 경외감을 느꼈고, 당회록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서 ‘1898년 12월 18일’이란 날짜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느꼈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개신교가 조선 땅에 전해진 지 140년 가까이 되었지만, 124년 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서 제가 읽을 수 있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현재 전국에 존재하는 당회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당회록을 대구·경북의 어머니 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번역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당회록을 번역해야 하는데, 이공 계통의 배경을 가진 제가 감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한문과 고문(古文)에 대한 지식,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본 능력,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역사 위원장의 역할이 있었기

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당회록 번역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회록 원문은 세로쓰기하였고, 띄어쓰기나 문장부호가 없었으며, 고어와 한자가 병행되었고, 오기(誤記)도 있었으며, 당시 서기나 기록한 분 각자의 필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읽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3권 후반부에 가면 한학에 조예가 깊으신 당시 서기 장로님은 조사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로 기록하였고, 세필로 약자와 초서의 형태로 당회록을 기록하여 번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당회록 번역은 한국 교회사에 큰 의미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자료를 통해 처음 복음을 접한 초기 한국 교회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와 함께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의 신앙 체계를 어떻게 세



〈사진 1〉 대구제일교회 당회록 제1권에서 제6권(1898년 ~ 1973년)까지의 제본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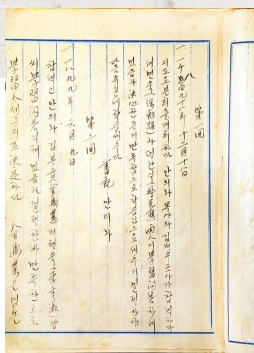
1) 1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위원, 해외선교부 부장

위나갔는지를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알 수 있습니다. 현 21세기 한국교회 문화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도 당시 교회는 당사자들을 치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사람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장로를 치리하는 등 예외 없는 엄격함이 초기 개신교가 유교와 불교에 젖어 있던 조선 땅에 자리를 잡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거룩함이 퇴색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진지하게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 금과옥조 같은 산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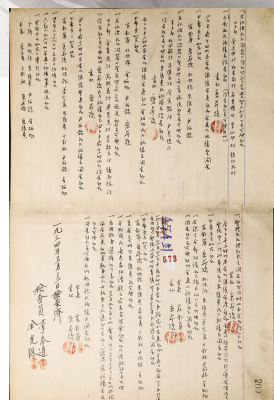
현재 출간된 많은 기독교 역사서를 보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기억과 구술 및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작가의 생각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당회록은 일지 형식으로 당시의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서, 가장 정확한 날짜와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분립되었거나 창립된 많은 교회들의 공식적인 정확한 날짜와 당시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자료도 본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대구제일교회에서 복음을 받아 지방 시골교회의 설립에 관여한 많은 분의 성함과 기록이 남아 있기에, 문서로 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구전으로 전해오던 지방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번역 작업에서 제가 중요하게 적용했던 몇 가지 번역 원칙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번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원문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었습니다. 문법이 맞지 않아도 뜻이 통하면 그대로 적었으며, 확실한 오기일 때는 고쳐 적었고,



〈사진 2〉 대구제일교회 당회록 제1권의 제1회(1898년 12월 18일), 제2회(1899년 6월 9일)의 내용



〈사진 3〉 대구제일교회 당회록 제3권의 마지막인 제573회(1934년 11월 11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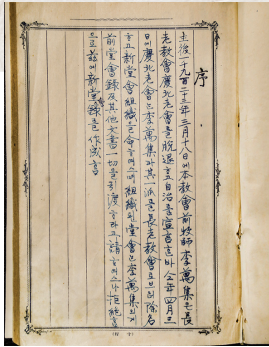
조금이라도 오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각주를 이용하여 설명했습니다.

둘째, 한자로 기록된 부분은 괄호를 통해서 한자를 기록했고, 고어나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최대한 각주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으며, 도저히 번역이 어려운 글은 제가 읽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표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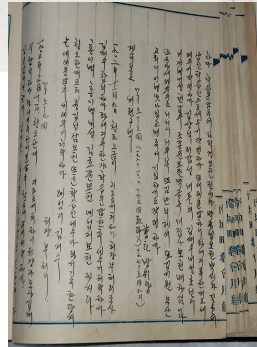
셋째, 원문에는 문장부호와 띄어쓰기가 전혀 없었지만 읽기의 편리성을 위해 제가 임의로 추가하였습니다. 성함의 경우 한글로 기록된 부분이 많아서 교회의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최대한 한자를 병행 표기하였습니다.

넷째, 회수의 기록은 수정이 여러 번 되었는데, 수정한 기록들도 그대로 남겼습니다. 특히 고(故) 이상근 원로목사께서 당회록의 회수 오류를 많이 수정하셨고, 또한 당회록 기록 당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수가 수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도 역사라고 생각되어 수정되기 전의 회수를 괄호와 대괄호를 사용하여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이 책에 첨부된 각주는 교회에 보관되어있는 각종 자료를 참조하였고, 번역과



〈사진 4〉 대구제일교회 당회록 제2권의 서문. 자치 파동으로 인하여 새로 당회록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서문(序文)에 기록하였음.



〈사진 5〉 대구제일교회 당회록 제1권의 제57회 (1902년 11월 9일) 내용. '1982. 10. 2 이상근 회수 기입'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담임목사인 고 이상근 원로목사께서 당회록의 회수를 수정한 기록이 남아 있음.

정에서 많은 분과의 대화와 제 개인의 짧은 신앙 경험과 식견을 토대로 달았습니다.

여섯째, 이번에 번역한 당회록은 1, 2, 3권입니다. 이 분류는 대구제일교회에서 당회록 보관을 위해 책으로 제본하는 과정에서 정한 임의의 분류입니다. 1권은 1898년 12월 18일 ~ 1923년 3월 19일까지 첫 당회부터 자치 파동 시작까지의 당회록이고, 2권은 1923년 4월 7일 ~ 1925년 6월 9일까지 자치 파동으로 새로 당회록을 작성할 때 작은 용지에 쓰인 당회록이며, 3권은 1925년 6월 9일 ~ 1934년 11월 11일까지의 당회록을 제본한 것입니다.

76회부터 97회까지의 당회록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1905년 초부터 1907년 6월까지의 당회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대구제일교회의 첫 장로님들의 임직에 관한 사항도 알 수가 없고, 여러 소중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몇 년에 걸친 번역 작업을 해오면서 너무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주위에서 당회록 번역 발간을 기다리던 많은

분의 기대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믿음으로 이 번역 작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구제일교회의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초기 당회록이 번역되어 대구·경북 지방의 초기 선교 역사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번역과정에서 특별히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자문으로 도움을 주신 권오현 장로님과 읽기가 어려운 한자가 나올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신 강용수 집사님, 그리고 사진을 찍고 정리해 주신 우제오 집사님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교회에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4권과 5권 등 1960년까지의 당회록을 번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언을 드리자면 비록 당회록이라 지루한 내용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한줄 한줄씩 인내를 가지고 정돈된 마음으로 읽어가시면 초기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활활 타오르는 감동을 느끼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대구제일교회 당회록 번역 출간을 계기로 대구제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21세기 한국교회 전체의 거룩함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한 산 교훈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편역자의 글을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불렷동상

우리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2)



권오현 은퇴장로

[머릿글]

대구 경북지역에 하나님 복음이 1893년 4월에 전파된 이래 이 지역의 모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우리 교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인근 지역 사방으로 뻗어나간 신앙의 불길은 1903년 우매교회 분립을 시작으로 1916년 감삼교회 분립까지 교회 창립 20년 만에 무려 10곳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에도 교회 분립은 우리 교회의 전도 정책으로서 계속되었으며 1986년 서대구교회를 마지막으로 25곳 교회의 분립·개척이 일단락되었다. 또한 신앙 노선의 차이로 인하여 3곳의 교회가 나뉘지기도 하였다.

‘물댄동산 100호’ 특별 지면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 28곳의 설립이유와 과정을 역사기록을 근거로 하여 간략하게 서술한다. 이 글이 대구제일교회의 위상과 책임,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 등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구제일교회 130년사편찬위원회

권오현

대구 중심지에 있는 우리교회가 부흥됨에 따라 교회 분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교회의 분립이 시작된 주요 원인은 원거리에서 사는 교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각 지역에 교회를 분산 설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구 인근 외곽지에 살고 있던 초대 교인들은 도시락을 준비하여 교회까지 수 십리 길을 걸어 주일예배에 참석하였다. 이처럼 불편한 교인들을 위해 인근 각 지역에 교회를 분산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부흥하면서 늘어난 초대 교인 1,00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좁고 열악한 시설의 예배당이었다. 다행히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1908년 이후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분립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 분립시킨 교회를 설립순서대로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7) 동산교회 (현 서문교회)



서문교회(西門教會)는 우리 교회에서 일곱 번째 분립한 교회로서 대구시 중구 대신동에 자리하고 있다. 서문교회는 1912년 분립 당시, 우리 교회 서편에 생겼다고 해서 서편교회 또는 동산교회(東山教會), 제2 교회라 하였으며, 한때는 달남교회(達南教會)라고 불렀다. 일제에 의해 1914년부터 행정구역이 일 본식으로 바뀌면서 신정교회(新町教會)로 불리다가 해방 후 서문교회로 바뀌었다. 서문교회 분립과정을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세가 왕성하여 교인이 1,000여 명으로 늘어나 새로 건축한 140평의 두 번째 예배당도 비좁게 됨으로서 시내 서편에 교인 3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새로 세운 것이다. 서문교회 설립에 관하여 제169회, 제170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2년 6월 6일 하오 3시에 부해리 목사 사랑에 모여서 부해리 씨의 기도도로 개회하다. 본 교회 교인 왕성하고, 교회당이 협착함으로 본 지방 서편 신동 등지에 삼백 명 되는 교회 한 곳을 새로 세우고, 선교사회에 맡기어 치리키로 동의 가결하다. 회장 홍승한, 서기 김덕경

또한, 경북교회사¹⁾에서는 서문교회 분립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2년 대구 신정교회(新町教會) 입(立)하다. 선시(先是)에 시내 남성정에 교회가 창립되야 우자(于茲) 8~9년간에 천여 명이 1개소 회당에 난용(難容)한지라. 고로 시내 서편 일면에 구역을 분정(分定)하고 남녀 합 백유여인(百有餘人)이 분교(分敎)하였으니 상(商)히 상당한 예배당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우선 동산제중원 일방(一方)을 차득(借得)하여 예배처소를 정하고 수월(數月)을 경과하는 중 교인이 점차 증가하여 동 제중원에서 용납키 불능이라. 갱(更)히 계성학교 기도실을 차용하니 그 시 설립자는 안의와로, 조사는 정재순, 영수 서자명, 집사 이쾌영 김영서 제인 이러라.

8) 남산교회



남산교회(南山教會)는 1915년에 우리 교회에서 여덟 번째로 분립한 교회이며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자리하고 있다. 남산교회는 우리 교회 남편에 생겼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남교회 또는 제3 교회라 부르기도 하였다. 남산교

1) "경북교회사" p.47 박덕일 박문영 공편, 대구, 1924

회 분립과정을 보면 역시 서문교회 분립과 같이 당시의 우리교회 교세가 왕성하여 시내 남편에 새 교회를 세운 것이다. 남산교회 분립 시에 특이한 사항은 다른 교회분립과 다르게 우리 교회에서 남산교회 건축을 주도하였으며 완공 후 교회분립 시에는 남부구역에 거주하는 270여 명의 교인으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남산교회 설립자는 대구 선교지부 설립 초기부터 이 지역 선교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부해리 목사이다. 남산교회 설립에 관하여 제199회~제224회 당회록 중 5차례 걸쳐 1년 반 동안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14년 6월 26일 하오 5시에 당회가 동산 어 목사 도만씨 댁에 회집하니, 회원은 어도만, 홍승한 목사와 박순조, 백신칠, 김덕경 장로라. 본 교회는 본 지방 남편에 교회당 한 곳을 더 두자고 노회에 청원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회장 어도만, 서기 김덕경

1915년 7월 6일 하오 8시 반에 당회가 어도만 목사 사랑에 회집하니, 회원은 어도만, 홍승한 목사와 박순조, 백신칠 장로라. 남산예배당은 거의 건축이 될 하였은즉, 교회 갈리는 일에 대한 모든 절차는 그 교회를 맡아 볼 부해리 목사와 의논을 먼저 한 후 작정키로 가결되고, 11일까지 정회하였다가, 당일 하오 3시 반에 남성정전도실에서 홍승한 목사의 기도로 연속 개회되니, 회원은 여전하다. 남산교회 일을 볼 부해리 목사께서 교회 갈리는 데 대하여는, 임시 모든 작정을 본 당회에 의탁한다는 회장의 보고가 있는 고로, 회중이 그 보고를 받아 금 18일 주일부터 온전히 갈라 모이되, 금년 9월 총회 후까지는 본 당회에서 임시 관리하기로 회중이 의결하다. 회장 어도만, 서기 백신칠

1915년 9월 13일 하오 8시에 본 당회가 남성정전도실에 회집하니, 회원은 여전하다. 남산회당 갈리는 것은 9월 26일 주일부터 선교사 부해

리 씨에게 전수하되, 지정은 부내 남산정, 덕산정, 달성군 상중동, 룡두, 대명동의 남산 등지요, 교인은 입교인 남인 53명, 여인 62명, 학습 남인 26명, 여인 19명, 유아세례 3명, 그 외에 남녀 원입교인과 아이 백 명 가량을 주기로 결의하다. 회장 홍승한, 서기 백신칠

남산교회 분립에 관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²⁾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5년 을묘(乙卯)에 대구부 남산정교회(南山町教會)가 설립하다. 선시(先是)에 다수 신도가 남성정교회에 내왕예배(來往禮拜)하더니 지시(至是)하여 분립하니라.

9) 효목교회



효목교회(孝睦教會)는 1915년 우리 교회에서 아홉 번째로 달성군 수성면에 분립한 교회이며, 현재 지정은 대구시 동구 효목동이다. 효목교회 분립과정도 역시 그 당시의 왕성한 우리교회 교세로 인하여 시내 동편에 새 교회를 세워 그 구역에 살고 있던 60여 명의 교인을 이명한 것이다. 효목교회 설립에 관하여 제226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5년 10월 30일 하오 8시에 본 당회가 남성정전도실에 회집하니, 회원은 홍승한 목사와 박순조, 백신칠 장로라.

2)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하)" p.340 차재명,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6

오는 14일 주일부터 달성군 효목동에 교회를 갈라 선교사회에 맡기되, 입교인 17명, 학습인 13명, 원입교인 30여명이요, 지경은 본 효목동과 배일 신천 금단 구성촌에 남이 등지로 주기로 의결하다. 회장 홍승한, 서기 백신철

또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³⁾는 다음과 같이 효목교회 분립에 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1915년 을묘(乙卯)에 달성군 효목교회(孝睦敎會)가 설립하다. 선시(先是)에 본지인(本地人) 김만도 등이 신도(信道)하고 대구 남성정교회에 내왕예배(來往禮拜)하더니 열심 전도하여 신자증가(信者增加)라. 예배당을 신축하고 교회 분립하니라.

10) 감삼교회



감삼교회(甘三敎會)는 1916년 달성군 달서면에 분립된 교회로서 그곳의 현재 지명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이다. 감삼교회 설립에 관하여 경북교회사⁴⁾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기도처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16년 달성군 달서면 감삼교회(甘三敎會) 입(立)하다. 선시(先是)에 대구 남성정교회에 다니던 권일관 김덕원 등 교인들이 감삼동에서 열심 전도한 결과 교인들이 십여 명으로 불어 난데서 비

롯되었다. 이들 십여 명의 교인들은 처음에는 부근 신당교회로 다니며 예배를 드렸다. 신당교회로 래왕예배(來往禮拜)하는 도중 교인들이 40여 명으로 불어난 고로 감삼동에 교회를 분립하기로 뜻을 모아 감삼교회를 조직하였다. 설립자 부해리, 영수 권일관, 조사 염봉남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 남성정교회 박순도 여사는 금 10원을 연보하였다.

감삼교회는 위의 설립과정을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먼저 분립시킨 신당교회에서 분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원래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권일관 김덕원 등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40여 명의 교인들로 불어나자 멀리 있는 남성정교회까지 나올 수는 없고 임시로 이웃 신당교회에 다니다가 곧 감삼교회로 분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⁵⁾는 다음과 같이 감삼교회 분립에 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1916년 병진(丙辰)에 달성군 감삼교회(甘三敎會)가 설립하다. 선시(先是)에 권일관 김덕향 등이 선신(先信)하고 남성정교회에 내왕예배(來往禮拜)하더니 열심 전도하여 신자 10여 인이라. 신당리교회에 이속(移屬)이더니 귀후(厥後) 신자가 일증(日增)하여 교회가 분립하니라. 선목사 부해리, 영수에 권일관, 조사 염봉남이 시무하니라.

11) 산격교회 (현 산격제일교회)



3)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하)” p.340 차재명,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6

4) “경북교회사” p.69 박덕일 박문영 공편, 대구, 1924

5)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하)” p.342 차재명,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6

산격교회(山格教會)는 1920년에 우리 교회에서 열한 번째로 달성군 성북면에 분립한 교회이며, 현재 지명은 대구시 북구 산격동이다. 원래 산격교회로 설립되었으나 1959년 산격 제일교회로 교회 이름을 변경하였다. 교회분립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산격기도실로 존재하였으며, 교회설립과정에 관하여 제 283, 287, 299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9년 6월 16일 하오3시에 본 당회가 동산 어도만목사 사랑에 회집하니, 회장은 목사 어도만과 장로 백신철이라.

지나간 4월 25일 제직회의 의논으로 산격교회를 갈라주기로 작정한 후, 5월 16일에 교회를 갈라줄 때 서두구 씨를 영수로 하며, 서지오 씨를 집사로 택하되, 아직 동안은 본 교회에 속하여 지내게 하였다, 회장 어도만, 서기 백신철

1920년 12월 27일 상오 10시에 본 당회가 안의와 목사 사랑에 회집하니, 회원은 회장 안의와, 장로 장처중, 최중철, 장한진, 백신철 제씨와 본 교회 임시 조사 강신창씨라.

본 교회 부속교회 산격은 새로 한 교회로 분립케 하고, 노회에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회장 안의와, 서기 백신철

12) 칠성정교회(현 칠성교회)



칠성교회(七星教會)는 1921년 우리 교회에서 열두 번째로 분립한 교회로서, 원래 대구시 칠성동에 설립되었으나 1985년 도시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후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으로 이전하였다. 칠성정기도실은 인근의 산격기도실과 같은 시기에 상당 기간 동안 기도소로 운영되다가 칠성교회로 성장하였으며, 교회설립과정에 관하여 제263, 287, 294, 306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8년 2월 2일 하오 7시에 본 당회가 남성정 전도실에 회집하니, 회장 어도만씨의 기도로 개회하다. 오는 주일에는 본 교회 내 칠성리 지방 기도회 집 살 것 별연보하기로 가결하다. 회장 어도만, 서기 백신철

1921년 3월 23일 오후 9시 반에 본 당회가 리 목사 댁에 회집하니, 회원은 회장 리만집목사와 장로 장처중, 백신철, 장한진, 최중철 제씨요, 회장이 기도로 개회하다.

칠성정 예배당이 낙성되었기로 3월 27일 오후 3시에 헌당식을 거행하기로 작정하고, 당일부터 교회는 분립하기로 가결하고, 임시 집사는 김경삼 씨로, 남권찰은 김성옥, 리장신 양씨로, 여권찰은 여봉금, 전충신 양씨로 정하기를 가결하다. 회장 리만집, 서기 최중철

또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⁶⁾는 칠성교회 분립에 관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21년 신유(辛酉)에 대구부 칠성정교회(七星町教會)가 설립되었다. 선시(先是)에 본처교우(本處敎友)들이 남성회(南城會)로 다수왕(多數往)하더니 교회 발전되므로 인하여 지시(至是) 분립하니 설립자는 선교사 위철치요, 이장신은 영수로, 이희봉은 목사로 시무하였다.

불평등상

6)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하)” p.394 차재명,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6

대구제일교회 10년의 행진

2013년 ~ 2022년

☞ 아래 10년간 기록은 물댄동산 편집부에서 주보를 통해 발췌 정리 하였습니다

2013년

- 1월 21일(월)~31일(목) 청년부 대만 단기선교, 최희수목사 외 9명
- 1월 22일(화)~25일(금) 저녁 7시 30분 제4회 바이블 아카데미, 박창운 담임목사
* 주제 : 예수가 걷던 길을 다시 걷다
- 2월 10일(주일) 권 철, 김정한 부목사 부임
- 2월 18일(월)~3월 1일(금) 성지순례, 박창운 담임목사 외 23명
- 3월 21일(목) 2013 봄학기 성경공부 개강
*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10주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10주과정(성경공부 남자반)
- 4월 20일(토) 오후 5시 본당, 교회창립 120주년 기념음악회 “천지창조”, 연합찬양대 · 관현악단
* 총감독 · 지휘 : 안승태장로
- 5월 4일(토)~6월 8일(토) 토요일 6주간, 해외선교부 선교관학교
- 6월 2일(일) 박현철목사 사임, 성명여중 교목(정교사) 부임.
- 6월 24일(월)~28일(금) 저녁 7시, 구약의 파노라마 성경공부
- 7월 29일(월)~8월 11일(주일) 청년부 인도 단기선교, 최희수목사 외 10명
- 8월 2일(금)~8일(목) 캄보디아 의료선교 봉사 활동, 윤성도장로 외 29명
- 8월 13일(화)~19일(월) 선교관학교 몽골 단기선교, 김택준목사 외 10명
- 8월 18일(주일) 오후예배, 일일 말씀 사경회, 김지찬 목사(충신대 구약학 교수)
- 9월 24일(화)~27일(금) 저녁 7시30분, 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박창운 담임목사
* 강 좌 :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다!”
- 10월 10일(목) 오전10시, 2013 가을학기 성경공부(10주과정) 개강



* 과 정 : 1단계 “신약 이야기” (박창운 담임목사),

2단계 “신앙 주제별” (권철 목사)

10월 13일(주일)	오후예배, 일일 말씀사경회, 노영상 목사(호남신학대학교 총장)
10월 20일(주일)	오후예배, 일일 말씀사경회, 장경철 목사(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10월 29일(화)~11월 1일(금)	저녁 7시 신약 파노라마
11월 25일(월)~11월 27일(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12월 6일(금)	사랑의 연탄 나눔 및 난방유 지원 행사
12월 8일(주일)	제6회 새터민 송년의 밤
12월 8일(주일)~24일(화)	사랑의 열매 행사
12월 8일(주일)	태풍 하이옌 피해 필리핀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12월 15일(주일)	오후 3시 항존직 은퇴 및 임직

김현철 장로의 **장로 은퇴**, 임창빈 이강일 이관웅 집사의 **안수집사 은퇴**, 김명희 유경자 유태순 신춘지 최춘자 지부자 김경애 이송양 나혜정 이춘우 변정자 권사의 **권사 은퇴**, 이명자 심 조 최이조 임국희 오춘분 지관옥 김양희 김옥조 이정희A 이정희B 문봉임 신수연 서인순 김순한 소선희 윤영희 박선이 함경례 박순동 김숙영 권영조 서리집사의 **명예권사 추대**, 김옥배 여명현 김동철 정만덕 배영호 이시영 정영섭 이창우 이승환 임병규 집사의 **장로 장립**, 송택균 박종학 한 혁 강신복 최진연 임준희 정문승 홍정우 방 훈 신승환 서리집사의 **집사 안수**, 진은숙 이순자 홍수경 이순애 이영승 양진숙 최경문 김옥희 서임선 권순자 서리집사의 **권사 임직**

2014년

2월 9일(주일)~	12주간, 큐티 소그룹 인도자 훈련(1기), 권철, 김택준, 김정환 목사
2월 9일(주일)~23일(주일)	주일 오후 예배 평신도 신앙강좌
	① 2월 9일 - 이재정 집사(이재정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 그리스도인의 우울증)
	② 2월 16일 - 서인수 장로(캄보디아 시니어 선교사, 그리스도인의 시니어 선교)
	③ 2월 23일 - 이재율 집사(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2월 11일(화)~21일(금)	청년부 대만 단기선교, 최희수목사 외 8명
3월 3일(월)~7일(금)	저녁 7시 30분, 바이블 아카데미, 박창운 담임목사
10일(월)~14일(금)	* 강좌: 요한계시록 강해



3월 19일(수)~5월 28일(수)	저녁 8시 10분 봄학기 1·3·1 성경공부반(수요반) 개강 * 강좌: 성경적 리더십(장로반), 그리스도인의 삶(남성반), 그리스도인의 삶(여성반)
3월 20일(목)~5월 29일(목)	오전 10시 봄학기 1·3·1 성경공부반(목요반) 개강 * 강좌: 구약이야기, 크리스찬 베이직, 에베소서 교회론
4월 27일(주일)	총회 사적 지정식, 대구제일교회(구, 예배당) 한국 기독교 사적 제13호로 지정
5월 29일(목)~6월 26일(목)	매주 목요일 5주간, 해외선교부 제4기 선교관학교 * 주제: 북한선교
6월 19일(목)	오후 7시 ~ 9시, 해외선교부 북한선교 세미나 * 주제: 남북통일의 의미와 통일 로드맵 * 강사: 이상만 교수(중앙대학교 북한개발 협력학과)
7월 1일~10월 30일	(4개월)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30호인 대구제일교회 선교관(구, 예배당)의 문화재 관광 정비 및 보수공사 착공
7월 7일(월)~11일(금)	저녁 7시 ~ 9시 구약 파노라마 성경공부
8월 3일(주일)~9일(토)	필리핀 바기오 해외 의료선교, 우극현장로 외 24명
8월 18일(월)~20일(수)	부흥사경회, 김지찬 목사 (충신대 구약학 교수) * 주제: 하나님의 자녀, 과연 그대는 누구인가?
9월 25일(목)~	10주간 (매주 목요일) 가을학기 성경공부반 개강(여성반) * 강의: 바이블 마스터(신약), 바이블 마스터(개인성경연구)
9월 28일(주일)~	10주간 (매주 주일) 가을학기 성경공부반 개강(남성반) * 강의: 기독교 에센스
10월 19일(주일)	제4회 한마음운동회 개최, 표어: “하나된 울림, 새로운 열림”
11월 26일(수)~12월 24일(수)	사랑의 행복 살림 프로젝트 시행 * 사랑의 김장 나눔, 사랑의 연탄 및 난방유 지원, 사랑의 열매, 새터민 송년의 밤
12월 28일(주일)	3부 예배 항존직 은퇴 및 추대식 김영철 장로의 장로 은퇴 , 서광신 김주호 주철은 서광해 집사의 안수집사 은퇴 , 민후경 송국자 배은자 엄선진 정수자 이화자 양옥순 홍효순 권사의 권사 은퇴 , 김 준자 정춘자 이순향 홍경자 이갑정 서리집사의 명예권사 추대



2015년

- 1월 5일(월)~12일(월) 방글라데시 세롬빠라교회 건축 단기선교, 최희수 목사 외 6명
- 1월 26일(월)~2월 7일(토) 청년부 대만 단기선교, 최희수목사 외 13명
- 2월 3일(화)~8일(주일) 대만 의료선교, 서인수장로 외 11명
- 2월 8일(주일), 15일(주일) 오후예배 평신도 강좌 (강사: 신형근 권사)
* 주제: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성경적 상담” (1),(2)
- 2월 23(월)~4월 3(금) 전교인 40일 신약성경 통독
- 3월 1일(주일) 군학원선교부 2015년 학원상담선교 파송예배 및 교육
- 3월 22일(주일)~6월 11일(목) 12주간, 제2기 큐티 소그룹 인도자 훈련
- 3월 26일(목)~6월 11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봄학기 성경공부반 개강
* 강좌: 찬송과 더불어 떠나는 말씀여행, 복음서 이야기, 개인성경연구
- 4월 9일(목)~5월 7일(목) 매주 목요일, 제5기 선교관학교(5주 과정)
* 주제: 이슬람 선교의 이해와 접근
- 5월 11일(월)~15일(금) 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박창운 담임목사
* 주제: 바울이 걷던 길을 걷다
- 5월 31일(주일) 네팔 지진 돕기를 위한 특별헌금
- 7월 31일(금)~8월 7일(금) 스리랑카 하계 해외 의료선교, 김옥배장로 외 22명
- 8월 3일(월)~13일(목) 청년부 하계 비전트립(캄보디아), 최희수목사 외 10명
- 8월 7일(금)~13일(목) 해외선교부 비전트립(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김동원 장로 외 13명
- 8월 8일(토)~15일(토) 캄보디아 돔다예교회 입당 예배 참석, 손영자 권사 외 2명
- 8월 22일(토)~9월 19일(토) 토요일 5주간, 두란노 아버지학교 개설, 베어드홀
- 8월 31(월)~9월 2일(수) 부흥사경회, 백동조 목사(목포 사랑의 교회)
* 주제: 회복
- 9월 17일(목)~12월 15일(화) 가을학기성경공부

성경공부	목요성경공부	9.17(목)부터 12주
	50일구약성경통독	9.27(주일)부터 50일
	성경적상담교실	9.16(수)부터 8주
일대일사역	일대일인도자훈련3기	9.15(화)부터 12주
	일대일양육	9월부터 결연되는대로 시작
소그룹 사역	큐티소그룹인도자훈련3기	9.23(수)/9.24(목)부터 12주
	순모임	9월둘째주일 이후부터



- 9월 27일(주일)~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전교인 50일 구약성경통독 행사
* 범위 : 구약성경 창세기 ~ 에스더
- 10월 11일(주일) 교구 만남 주일 (교구 식구들 간 교제와 화합)
- 10월 17일(토)~21일(수) 북한선교 비전 트립, 김동원 장로 외 12명
* 내용 : 장백교회 조선족 예배 섬김, 백두산과 두만강, 북간도 디아스포라 유적지 방문
- 11월 1일(주일)~11월 14일(토) 해외 성지순례, 이광희 목사 외 20명
* 내용 :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초대 교회의 유적지들을 답사
- 11월 20일(금)~12월 24일(목) 사랑의 행복 살림 프로젝트
* 김장, 연탄 및 난방유, 사랑의 열매 나눔
- 12월 5일(토) 새터민 송년의 밤
- 12월 6일(주일) 교회학교 교사의 밤
* 강이철 집사 강연(교사의 힘), “남성중창단 아르스노바와” 함께하는 음악회 및 만찬
- 12월 13일(주일) **은퇴 및 임직예식**
박상일 이신희 한도형 김상한 김기웅 김옥배 장로의 **장로 은퇴**, 라판술 배 청 서광해 집사의 **안수집사 은퇴**, 김정화 임성혜 임신자 이윤자 김희순 김양숙 박경옥 조지원 광선립 배영자 권사의 **권사 은퇴**, 김춘지 안동영 진종선 김순자 진동덕 원신자 이정자 서리집사의 **명예권사 추대**, 표선주 최무진 이문희 집사의 **장로 장립**, 유대안 최진술 임주섭 집사의 **안수집사 취임** 권태훈 진병로 한성봉 강승환 이정목 김정연 집사의 **집사 안수**, 이증수 마숙남 김은희 임희숙 홍태희 정연수 박순호 송인숙 김현옥 금현주 서현주 서리 집사의 **권사 임직**
- 12월 20일(주일) 김택준목사 사임, 광주 뽕엘교회 부임
- 12월 27일(주일) 염성훈목사 사임,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대구제일교회 역사관 개관 (개관 예배)

2016년

- 1월 3일(주일) 제직 수련회, 안영호 목사(생명의빛교회)
- 1월 17일(주일) 부목사로 정의섭 목사, 한정수 목사 부임
- 1월 21일(목)~26일(화)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 임병규 장로 외 2명



2월 15(월)~3월 25일(금)	사순절 40일 구약성경통독 행사 * 통독범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49~55장
3월 6일(주일)	2016년 학원상담선교 파송예배 및 OT
4월 7일(목)~6월 30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봄학기 성경공부반 개강 * 강좌: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 (이광희 목사)
5월 22일(주일)~25일(수)	2016년 선교관 학교 및 선교주간
7월 29일(금)~8월 4일(목)	캄보디아 단기선교, 우극현 장로 외 43명 * 선교 내용 : 의료(양방, 한방, 치과), 이미용, 문화(음식), 아동, 영어 사역 등
8월 10일(수)~21일(주일)	청년부 캄보디아 미션트립, 김정한 목사 외 15명 * 선교내용 :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경학교, 전도집회
8월 31일(수)~9월 2일(금)	부흥사경회, 차준희 목사(한세대 구약학 교수) * 주제 :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니다
9월 11일(주일)	교회발전을 위한 전교인 설문조사 실시(교회발전 특별위원회)
10월 9일(주일)	권철목사 사임, 서울무학교회 부목사로 부임 장로 재신임 투표 실시, 최성규, 문승욱 장로 재신임 가결
10월 13일(목)~12월 15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가을학기 성경공부반 개강 * 강좌 : “말씀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신앙” (한정수 목사)
10월 24일(월)~12월 2일(금)	대림절 40일 구약성경통독 행사 * 통독범위 : 예언서(이사야 · 말라기)
11월 27(주일)	임병철 목사 부임
12월 3일(토)	새터민 송년의 밤
12월 4일(주일)~24일(토)	사랑의 행복살림 프로젝트(사랑의 열매)
12월 18일(주일)	은퇴 및 명예 권사 추대 신동태 정원영 여명현 장로의 장로 은퇴 , 박덕호 남태철 김부용 김치곤 김정련 집사의 안수집사 은퇴 , 배지희 김향선 신현자 이경자 신계현 김춘조 이금례 허정자 구은연 정영애 이윤화 권사의 권사 은퇴 , 윤정희 채순남 이호용 김광임 장달준 서리집사의 명예권사 추대



2017년

1월 1일(주일)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 돕기 성금 2,700만원(기타 500만원 별도) 기탁
새벽기도회 장소, 본당 아담스홀에서 100주년 기념관 4층 정류아트홀로 변경
수요 예배 시간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

1월 8일(주일)

제직수련회(1), 오희국 목사(성서유니온 광주지부 총무)

1월 22일(주일)

제직수련회(2), 박창운 담임목사

2월 22일(수)~27일(월)

동계 해외 의료선교(스리랑카 콜롬보), 우국현 장로 외 16명

* 내용 : 의료, 이미용, 어린이 사역

4월 23일(주일)

항존직 임직식

이인형 송근배 집사의 **장로 장립**, 홍철형 손해식 조희중 박승식 배상태 허윤열
김남철 이주원 지문규 송대규 집사의 **집사 안수**, 한훈숙 황순옥 김동석 임은애 류
경숙 채종수 김금자 임창희 정명희 이호선 최승옥 전경애 이해숙 최미향 김정희 방
현숙 노선희 주영애 송재애 오주란 서리집사의 **권사 임직**

4월 23일(주일)

생명 살림 프로젝트 보고 :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필리핀 10세 소년 '만자노 데
렉')의 수술비 전액(1,000만원 정도)을 지원

5월 23일(화)~26일(금),

저녁 7시 30분, 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5월 30일(화)~6월 1일(목)

* 박창운 담임목사 * 주제 : 개인 성경연구 방법

7월 29일(토)~8월 4일(금)

/ 청년부 : 7월 26일(수) ~ 8월 2일(수) 2017 캄보디아 단기선교

* 선교 내용 : 의료(양방, 한방, 치과), 이미용, 문화(음식, 노방전도), 영어, 어
린이 사역 등

* 참석단원(총66명) : 지도목사 · 최희수, 김정한 / 부장 - 임병규장로

8월 28일(월)~30일(수)

부흥사경회, 이인호 목사(더사랑의 교회)

* 주제 : 은혜 아니면!

9월 10일(주일)

박창운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 실시, 재신임 가결

9월 21일~11월 3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가을학기 성경공부반 개강

* 강좌 : 삶의 변화가 있는 기도학교(임병철 목사)

9월 24일(주일)

오후예배, 찬양대 창단 100주년 기념 찬양예배

10월 1일(주일)~14일(토)

종교개혁지 탐방(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체코)

* 최희수, 김정한목사 외 28명

10월 21일(토), 11월 4일(토)

대구제일교회 유니게 학교 3기(영, 유아, 유치부)

11월 26일(주일)

최희수목사 사임, 평촌교회 부목사로 부임



12월 2일(토)

제10회 새터민 송년의 밤

12월 16일(토)

순모임 전체 수련회, 정류아트홀

12월 17일(주일)

이광희목사 사임, 서울 구의교회 부목사로 부임

12월 17일(주일)

항존직 은퇴 및 추대

서천수 김동철 장로의 **장로 은퇴**, 하영호 최상수 홍주표 김운영 신현구 조동필 장성주 조병계 채정기 송택균 집사의 **안수집사 은퇴**, 이해조 홍숙희 이정숙 노영희 이경옥 이달임 박애경 백경애 최근희 강자이 이갑년 김경임 최미경 홍월선 심영희 권사의 **권사 은퇴**, 곽순옥 김옥분 김윤녀 나경원 노용수 배재순 장재선 허경선 서리집사의 **명예권사 추대**

2018년

2월 1일(목)~2월 8일(목)

네팔 의료선교(의료, 미용, 행정, 어린이사역), 송근배장로 외 18명

2월 4일(주일)

김진식목사, 양인모목사 부임

3월 11일, 18일, 25일(주일)

영아부, 엄마·아빠와 함께 준비하는 “제1기 테바놀이터”

5월 20일(주일)

김숙자 전도사 부임

6월 3일(주일)

교회학교 : “어서 와! 교회는 처음이지” 천국놀이터 전도잔치(교회마당)

7월 26일(목)~8월 2일(목)

미얀마 단기선교, 우극현장로 외 9명

* 선교내용 : 가정 심방, 한류음식 사역, 어린이 사역, 의료 사역 등

8월 3일(금)~8월 11일(토)

의료선교부 2018년 스리랑카 단기선교, 송근배장로 외 29명

* 선교내용 : 의료사역, 이미용 봉사, 어린이 사역

8월 5일, 12일, 26일(주일)

영아부, 엄마·아빠와 함께 준비하는 “제2기 테바놀이터”

8월 8일(수)~8월 15일(수)

청년부 태국 미션트립, 김정한목사 외 14명

* 선교내용 : 성경학교, 전도집회, 문화탐방

9월 10일(월)~13일(목)

신앙사경회, 임영수 목사(모새골 공동체)

* 주제 : 회의에서 신뢰로

10월 18일~12월 6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가을학기 성경공부반 개강

* 강좌 : “신앙의 터 고르기” (김진식목사)

10월 28일(주일)

교구만남주일

10월 28일(주일)

영덕 축산교회 태풍 피해 복구 헌금으로 1,000만원 전달



11월 9일(금) ~ 11월 15일(목)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임병규장로 외 6명

* 현지교회 6곳 방문 및 학사건축, 화장실공사, 16개 지역에 정수기 설치, 성경학교 등

12월 8일(토)

제11회 새터민 송년의 밤

12월 16일(주일)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

권오현 김동원 표선주 장로의 **장로 은퇴**, 박명래 김명환 집사의 **안수집사 은퇴**, 권정옥 이월형 배미희 손영자 김문령 장계옥 신종순 김순옥A 정경숙 박경애 이호영 조영숙 김자영 김순옥B 김정희 권사의 **권사 은퇴**, 정명주 박달희 성옥선 서리집사의 **명예권사 추대**, 신기수 이세엽 강영우 집사의 장로 장립, 송병갑, 김종열, 권혁창 배규일 임병철 이기한 김상현 한신희 이상녕 박문호 서리집사의 **집사 안수**, 원국화 홍순남 민선식 조규정 안정숙 송은주 김혜숙 최은주A 최은주B 송무희 이은정 이은희 박경희 최호진 장희숙 이미애 강영주 손경희 김은주 양원윤 서리집사의 **권사 임직**

12월 20일(목)

본당 엘리베이터 준공 및 운행 개시

12월 31일(월)

제일지역아동센터 폐원

2019년

2월 10일, 17일, 24일(주일)

영아부, 엄마·아빠와 함께 준비하는 “제3기 테바놀이터”

2월 23일(토)

순원 전체 수련회, 아담스홀

3월 4일(월)~8일(금)

오후 7시 30분 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박창운 담임목사

* 주제 : 현대사회의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3월 6일(수)

수요 1부 예배 (오전 10시) 신설

3월 30일(토)

사이비 이단 예방교육(1), 양인모목사

3월 31일(주일)

김정환목사 사임, 광주 월광교회 부목사로 부임

4월 5일(금)

오후 3시, CTS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 ‘신앙 유산을 찾아서’ 대구제일교회 편 방송

4월 29일(월)~5월 2일(목)

신앙사경회,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원로목사)

* 주제 : 나를 변화시키소서

5월 12일(주일)

2부예배 온세대 예배 (오후예배는 어버이주일 가정예배로 대치)



5월 19일(주일)	본당 지하2층 인테리어 공사 완료
6월 2일(주일)	고(故) 이상근 목사 20주기 추모예식(오후예배) 대구기독교역사관 개관(전시 자료 추가, 정류 이상근 목사 특별 전시 공간 신설) 서성준목사 부임
6월 23일, 30일, 7월 7일(주일)	영아부, 엄마·아빠와 함께 준비하는 “제4기 테바놀이터”
7월 13일(토)	사이비 이단 예방교육(2), 양인모 목사
7월 28일(주일)~8월 2일(금)	의료선교부 필리핀 단기선교, 송근배 장로 외 28명
7월 30일(화)~8월 5일(월)	해외선교부 미얀마 단기선교, 이기덕 집사 외 18명
7월 31일(수)~8월 2일(금)	2545 가족 수련회, 경주 캔싱턴 리조트 * 25-45세 젊은 부부 가족(자녀동반) 수련회
8월 5일(월)~8월 14일(수)	청년부 몽골 비전트립, 서성준 목사 외 12명
8월 6일(화)~8월 16일(금)	중,고등부 캄보디아 비전트립, 이정이 목사 외 13명
8월 31일(토)	순 수련회, 정류아트홀
9월 29일(주일)	장로 재신임 투표 실시, 우극현 송준규 장익식 배재호 장로 재신임 가결
10월 20일(주일)	교구만남주일 역사위원회 고(故) 정류 이상근 목사님 자서전 재발간 고등부 예배 장소 본당 지하 1층 베어드홀로 변경
11월 7일(목)~12월 12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박창운 담임목사 * 주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문화 읽기
12월 7일(토)	제12회 새터민 송년의 밤
12월 8일(주일)	대구 기독교 원로원 엘리베이터 준공식
12월 15일(주일)	행정실장 김정훈 집사 부임
12월 15일(주일)	항존직 은퇴 및 임직식 최성규 장로 은퇴, 박종학 홍철형 안수집사 은퇴, 서영화 이정화 김영화 김미경 김연자 최정은 오경숙 이영희 류영례 임영순 김경숙 박옥례 정경혜 이영순 이증수 권사 은퇴, 김상준 김정숙 박정임 이상순 서리 집사의 명예권사 추대 , 이정재 강이철 이재정 장로 장립 , 이우식 협동안수집사의 집사 취임, 황갑호 서철호 김보식 김호덕 추연일 금철수 전용철 임신영 김정훈 집사 안수 , 김경화B 권명자 유지창 신동숙 장미숙A 강영미 권은주 도은희 이경옥B 도현정 서리 집사의 권사 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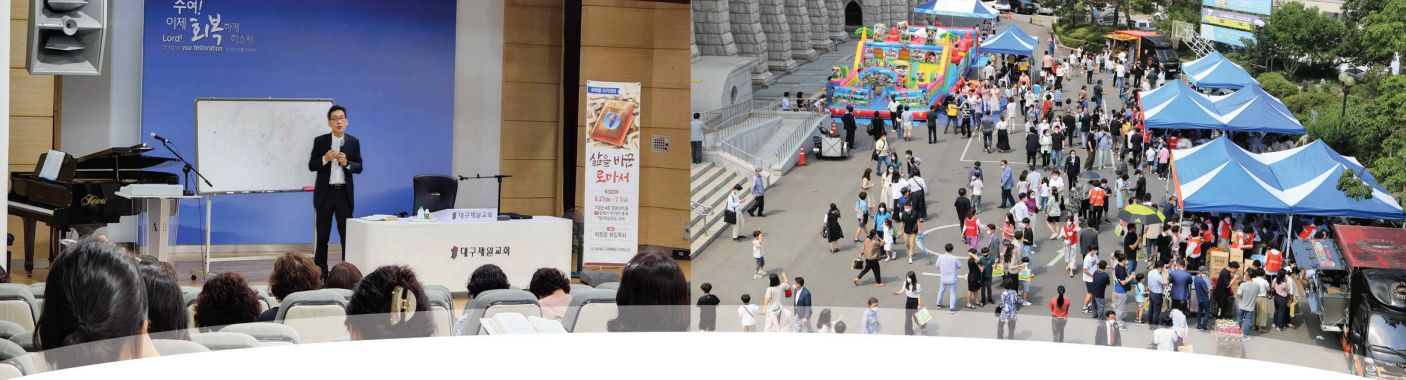


2020년

1월 5일(주일)	한정수목사 사임, 서울 신성북교회 부목사로 부임
1월 12일(주일)	역사위원회 고(故) 이상근 목사 『신약성서 난제(難題) 정해(正解)』 출간
2월 23일(주일)~연중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에배 및 기타 집회의 형태 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짐(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3월 1일(주일)	이태연목사 부임
5월 24일(주일)	사택 리모델링 후 게스트 하우스로 오픈
6월 14일(주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개의 미자립교회에 3,000만원 지원
6월 28일(주일)	‘제일가족의 날 ON-NA(온-나)’ 행사 * 1부: 전통예배 / 2,3부: 찬양팀과 함께 시작하는 온 세대 예배
8월 23일(주일)	스마트요람 시작
9월 27일(주일)	장로 재신임 투표 실시, 정영섭 이창우 이승환 임병규 장로 재신임 가결
10월 25일(주일)	정의섭목사 사임, 경기도 광명교회 부목사로 부임
10월 25일(주일)~12월 13일	(8주간) 교육부 교회학교 교사 아카데미(오프라인 · 온라인 동시진행)
12월 13일(주일)	주차장 방수공사 완료
12월 20일(주일)	항존직 은퇴 및 임직식 우극현 송준규 정만덕 배영호 이시영 신기수 장로 은퇴 , 김태호 황갑호 안수집사 은퇴 , 박수자 도선희 유연분 박석순 김민정 정양희 김경일 이규화 김인자 권사 은퇴 , 박광자 윤정애 이경남 임복순 정경순 서리집사의 명예권사 추대, 엄기정 양홍철곽정우 권순철 박근배 이현우 집사의 장로 장립 , 최창열 장지중 손경수 김성진 백승호 심대섭 배상인 정청기 김근섭 박상범 서리 집사의 집사 안수 , 정영숙 박충구 김성순 최병연 이경애 최은현 최은미 강영임 장성미 안현옥 서리 집사의 권사 임직

2021년

1월 3일(주일)~연중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정기에배 및 기타 집회의 형태 조정이 계속 이루어짐(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4월 11일(주일)	이스트힐 운영 재개
4월 19일(월)~23일(금)	오후 7시 30분~9시 30분, 2021 봄학기 제일 바이블 아카데미(1차) * 박창운 담임목사 * 주제 : “다시, 십자가!”



5월~2022년 4월(1년간)	* 장소 : 정류아트홀 및 유튜브 온라인 중계 대구 기독교 역사관(구, 성전) 2층 예배실을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대구 남신교회에 1년간 예배 장소로 사용토록 허락
5월 24일(월)~28일(금)	오후 7시 30분~9시 30분, 2021 봄학기 제일 바이블 아카데미(2차) * 박창운 담임목사 * 주제 : “종말, 버려진 땅끝마을” <요한계시록> * 장소 : 정류아트홀 및 유튜브 온라인 중계
6월 8일(화)	대구 기독교 원로원 : 정류 이상근 목사 설립기념비 제막식 행사
7월 18일(주일)	차별 금지법의 반대 메시지 선포 주일로 지킴(대구기독교총연합회 연대)
10월 14일(목)~11월 25일(목)	(매주 목요일 7주간) 목양부 퍼스트스텝 1기 운영
10월 17일(주일)	추수감사주일 맞이 교회학교 감사프로젝트 다.가.감.(다함께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11일(주일)	* 장소 : 교회 마당 및 주차장 은퇴 및 임직예식 문승욱 장의식 정영섭 이인형 장로의 장로 은퇴 , 박정열 우재오 집사의 안수집사 은퇴 , 박명숙 이해자 이은주 허일조 정명자 신순기 김정숙 이영화 마숙남 권사의 권사 은퇴 , 박미자 송종규 유옥진 서리집사의 명예권사 추대, 김정식 최진연 이정목 신승환 이형원 집사 이준옥 권사의 장로 장립 , 정용섭 류영호 한진환 강일석 조혁상 허균열 김주광 정희영 이정원 서리집사의 집사 안수 , 이경자A 김란희 백중복 이미향 윤태섭 이은희A 정해순 박현주B 하순희 최남송 이은영A 김영숙D 이명주 이미경A 홍선운 송인숙 옥진영 심은정A 김신은 서리집사의 권사 임직
12월 19일(주일)	김진식목사 사임, 대전 선창교회 부목사로 부임

2022년

1월 2일(주일)	교구 개편(1,2,3,4 교구로 개편)
1월 16일(주일)	주일 낮 4부 예배를 청년1,2부 예배(청년예배)로 명칭 변경
3월 2일(수)	장규현목사 부임
5월 8일(주일)	수요 1부 예배 시간을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
5월 15일(주일)	2부 예배를 온세대 예배로 드림
	교회 식당 운영 재개



5월 22일(주일)	강원도 · 울진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1,000만원과 어르신 보행기 35대 기부
5월 23(월)~27일(금)	오후 7시 30분 ‘욥기와 함께하는 바이블 아카데미’ * 박창운 담임목사 * 주제 : 까닭 없는 고난, 까닭 있는 믿음 * 장소 : 정류아트홀 및 유튜브 온라인 중계
6월 1일(월)	평일 교회 본당 개방 재개
6월 5일(주일)	"제일가족과 함께하는 나무엔 찬양 콘서트" (청장년부 주최)
6월 19일(주일)	다시 교회로! 온나!(on-na) 행사
6월 27일(월)~7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2022년 2기 바이블 아카데미 * 박창운 담임목사 * 주 제 : 삶을 바꾼 로마서 * 장 소 : 정류아트홀 및 유튜브 온라인 중계
8월 9일(화)	CTS 『위대한 유산』 프로그램에 故 이상근 목사의 유산 기부와 원로원을 방영
9월 25일(주일)	장로 재신임 투표 실시, 최무진 이문희 장로 재신임 가결
10월 9일(주일)	태풍 피해가 큰 포항, 경주 지역을 위한 특별헌금 실시
10월 16일(주일)	제5회 제일 가족 한마음 운동회(표어 : 온나! 한마음운동회, 뭉쳐야 BLESS)
11월 14일(월)~11월 17일(목)	신앙사경회, 김운용 목사(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 주제 : 그대,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라(계2:1~5)
11월 23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성탄 트리 점등식
11월 27일(주일)	물댄동산 100호 기념 “꿈나무의 마음 그리기”(그림 그리기 대회) * 주제 : 하나님사랑, 성경사랑, 교회사랑 * 대상 : 주일학교 영아~고등학생
12월 10일(토)	제13회 새터민 송년의 밤
12월 11일(주일)	3부 예배 항존직 은퇴 및 임직식 배재호 이창우 송근배 이정재A 엄기정 장로의 장로 은퇴 , 김주일 김인성 김상태 김기선 박수남 안수집사의 안수집사 은퇴 , 이숙희 이해자 이종열 송춘옥 이영숙 주금란 강순주 김판규 김순자A 진은숙 한훈숙 원국화 권사의 권사 은퇴 , 윤명희A 성선희 오영숙 이정옥 이정아A 최은희 김성자B 김영숙F 서리집사의 명예권사 추대

| 불평등상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역사기록 2023년도 교육부서 지도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사 대구·경북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밝히신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년을 준비하면서, 선조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하며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물댄동산 편집부>

교육1부 · 부장 : 이현우 장로 · 부부장 : 김승환 안수집사

교육2부 · 부장 : 강이철 장로 · 부부장 : 박상범 안수집사



영 아 부

지도교역자

– 김은지 전도사

부 장

– 최은현 권사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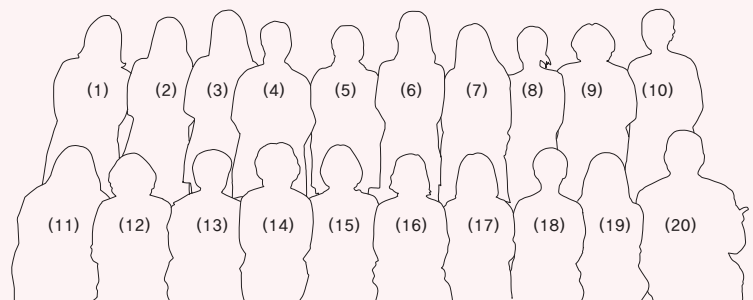
– 3세 이하(36개월 미만)의 영아

예 배 장 소

– 100주년 기념관(2층)

예 배 시 간

– 주일 오전 11시 30분



(1) 김영남 집사
(2) 장여경 청년
(3) 곽경주 집사
(4) 양수진 집사
(5) 권경숙 집사
(6) 안미경 집사
(7) 박은빈 청년

(8) 배유진 집사
(9) 정은주 집사
(10) 구본영 집사
(11) 김원진 청년
(12) 안현옥 권사
(13) 신호은 집사
(14) 최은현 권사

(15) 김은지 전도사
(16) 장성미 권사
(17) 김후연 집사
(18) 김정아 집사
(19) 최가은 청년
(20) 윤광호 집사
김혜경 집사



유 아 부

지도교역자

— 김현진 전도사

부 장

— 이경애C 권사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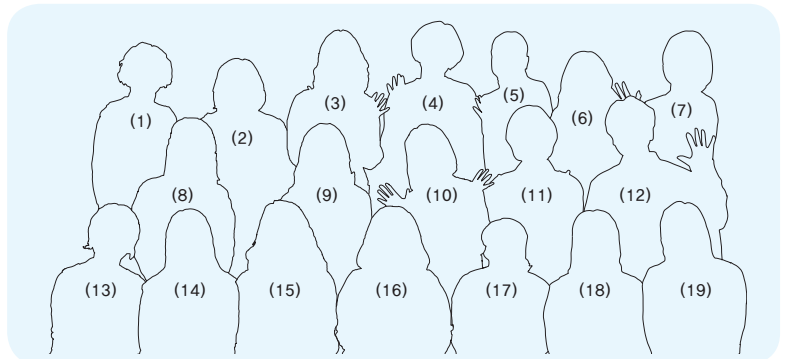
— 만 3~4세

예 배 장 소

— 100주년 기념관(3층)

예 배 시 간

— 주일 오전 11시 30분



(1) 이신명 집사

(2) 김은주 권사

(3) 남현주 집사

(4) 방현숙 권사

(5) 이은영A 권사

(6) 손성진 집사

(7) 이경애C 권사

(8) 전미혜 집사

(9) 이명혜 집사

(10) 곽다솜 청년

(11) 윤지현 청년

(12) 이상원B 집사

(13) 송지원 집사

(14) 김선영B 집사

(15) 류평강 성도

(16) 김현진 전도사

(17) 고미경 집사

(18) 김신희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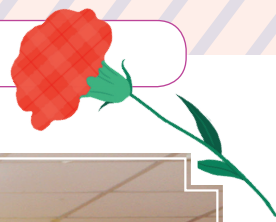
(19) 이다은 청년

배은주 집사

백승중 청년

이주영 청년

조선영 집사



유 치 부

지도교역자

— 김예영 전도사

부 장

— 김삼숙 권사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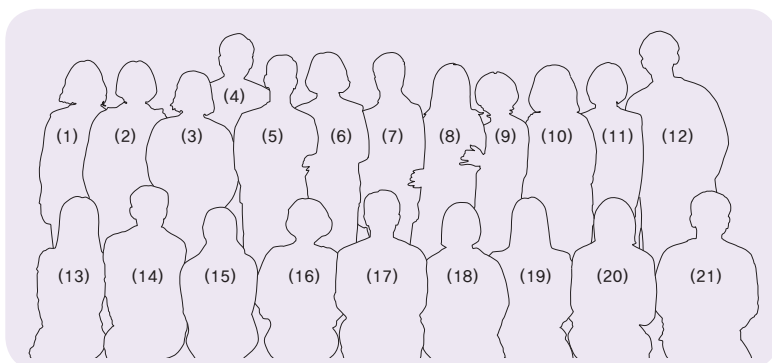
— 미취학 아동

예 배 장 소

— 100주년 기념관(3층)

예 배 시 간

— 주일 오전 9시 30분



(1) 배신영 집사

(2) 도현정 권사

(3) 최영숙 집사

(4) 이형민 집사

(5) 김종길 안수집사

(6) 김삼숙 권사

(7) 김은조 집사

(8) 이숙현 집사

(9) 송인숙A 권사

(10) 옥진영 권사

(11) 송인숙B 권사

(12) 이건엽 청년

(13) 김혜원 청년

(14) 박상은 청년

(15) 김예영 전도사

(16) 최혜지 청년

(17) 최동혁 청년

(18) 김예은 청년

(19) 김원주 청년

(20) 표민아 청년

(21) 박정현 청년
한민 청년



초등1부

지도교역자

— 김다운 전도사

부 장

— 이상녕 안수집사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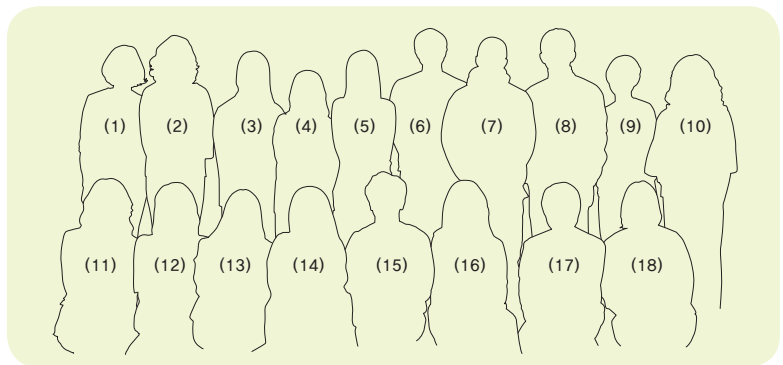
— 초등학교 1~3학년 아동

예 배 장 소

— 100주년 기념관(6층)

예 배 시 간

— 주일 오전 9시 30분



(1) 나선아 집사

(2) 신선아 집사

(3) 박다운 청년

(4) 오세원 집사

(5) 권연경 집사

(6) 배정인 집사

(7) 이동형 집사

(8) 김종찬 집사

(9) 권진영 청년

(10) 최순량 집사

(11) 이세진 집사

(12) 김지현 집사

(13) 정희영 집사

(14) 김다운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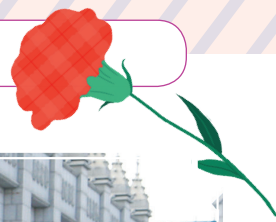
(15) 이상녕 안수집사

(16) 최현주 집사

(17) 김규명 집사

(18) 윤보영 집사

신미향 집사



초등2부

지도교역자

— 김주광 전도사

부 장

— 김근섭 안수집사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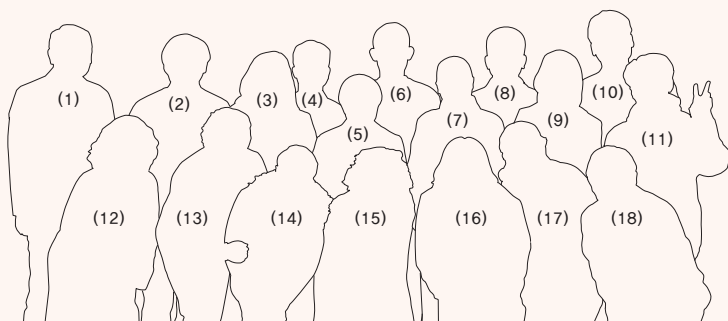
—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예 배 장 소

— 100주년 기념관(7층)

예 배 시 간

— 주일 오전 9시 30분



- | | | |
|--------------|--------------|-------------|
| (1) 한신희 안수집사 | (9) 하수정 집사 | (17) 남태희 집사 |
| (2) 문승욱 집사 | (10) 김주광 전도사 | (18) 조수민 집사 |
| (3) 최신애 집사 | (11) 윤표 청년 | 최나나 집사 |
| (4) 김근섭 안수집사 | (12) 하순희 권사 | 이가영 청년 |
| (5) 손경희 권사 | (13) 정경숙 권사 | 김민수 청년 |
| (6) 김현수 청년 | (14) 신윤희 집사 | 정주은 청년 |
| (7) 김호진 집사 | (15) 정현주 집사 | 김재린 청년 |
| (8) 여진만 청년 | (16) 유득순 집사 | 배지윤 청년 |



초등3부

지도교역자

— 박종성 전도사

부 장

— 장지중 안수집사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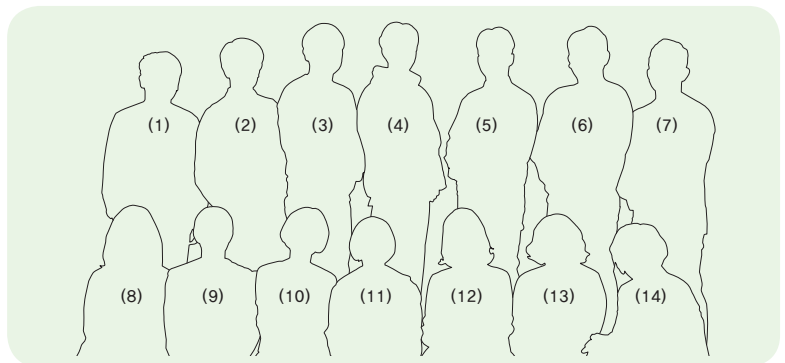
— 초등학교 1~3학년 아동

예 배 장 소

— 100주년 기념관(4층)

예 배 시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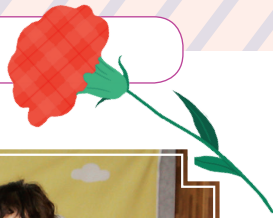
— 주일 오전 11시 30분



- (1) 송원호 집사
- (2) 장지중 안수집사
- (3) 권정훈 집사
- (4) 박근배 집사
- (5) 박종성 전도사
- (6) 김상민 집사
- (7) 김현수 집사

- (8) 김영미 집사
- (9) 이빛나 집사
- (10) 이여진 집사
- (11) 이하나 집사
- (12) 김정은 집사
- (13) 최윤정 집사
- (14) 이향재 권사

김정훈 안수집사
김도연 집사
송차용 집사
한성희 집사
홍은희 권사
강영우 장로



초등4부

지도교역자

– 윤다운 전도사

부 장

– 최은미 권사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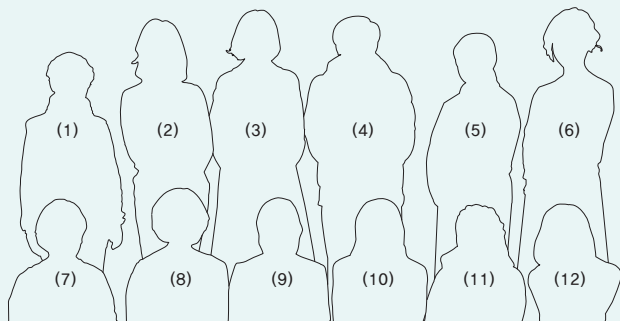
–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예 배 장 소

– 100주년 기념관(6층)

예 배 시 간

– 주일 오전 11시 30분



(1) 김종희 집사

(2) 광명희 집사

(3) 조연미 집사

(4) 배정수 청년

(5) 이태숙 선교사

(6) 이은정 권사

(7) 조정득 집사

(8) 최은미 권사

(9) 윤다운 전도사

(10) 최조은 청년

(11) 조이(JOY) 청년

(12) 카테베(KATEBE) 청년

만도 청년

추에서 청년

윤지영 집사



중 등 부

지도교역자

— 박예찬 전도사

부 장

— 장순기 안수집사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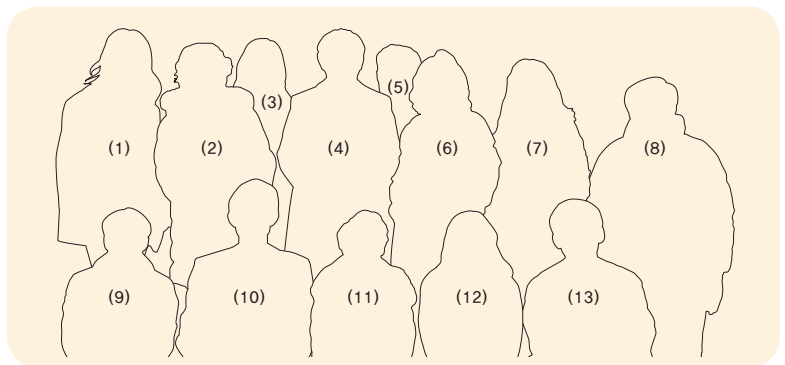
— 중학생

예 배 장 소

— 본당 지하 1층 아담스홀

예 배 시 간

— 주일 오전 9시 30분



(1) 조영란 집사

(2) 임효은 집사

(3) 조인지 집사

(4) 박예찬 전도사

(5) 김정준 집사

(6) 김영숙 권사

(7) 박영희 집사

(8) 배정수 청년

(9) 박은덕 청년

(10) 장순기 집사

(11) 김종희 집사

(12) 최가은 청년

(13) 윤태영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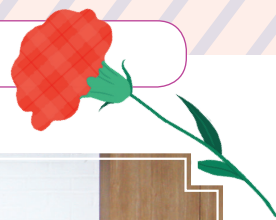
김철우 안수집사

정찬우 집사

김혜진 집사

윤예성 청년

최형규 청년



고 등 부

지도교역자

— 이정이 목사

부 장

— 배상인 안수집사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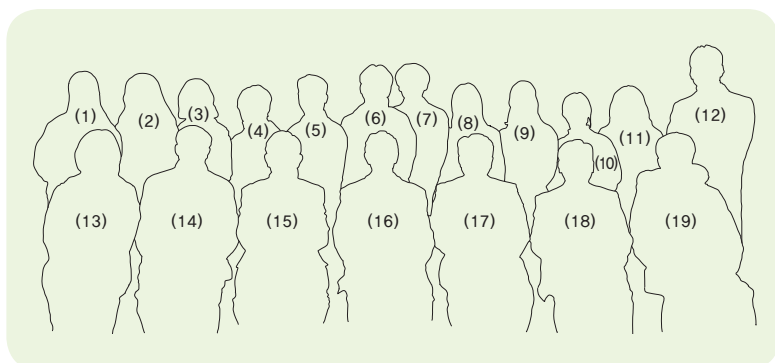
— 고등학생

예 배 장 소

— 본당 지하 1층 베어드홀

예 배 시 간

— 주일 오전 9시 30분



- (1) 홍지수 청년
- (2) 이미화 집사
- (3) 장희숙 권사
- (4) 한연아 집사
- (5) 권동우 청년
- (6) 최원석 집사
- (7) 백승원 청년
- (8) 조혜지 청년
- (9) 이하람 청년

- (10) 배예진 청년
- (11) 최가은 청년
- (12) 홍지혁 집사
- (13) 이수경 집사
- (14) 김동현 집사
- (15) 김태호 집사
- (16) 배상인 집사
- (17) 이정이 목사
- (18) 최무진 장로

- (19) 박종익 안수집사
- 엄기정 장로
- 손재현 집사
- 이채은 청년
- 박재현 청년
- 서영서 청년
- 서영희 청년



청년1·2부

지도교역자

— 서성준 목사

부 장

— 청년1부: 이금환 안수집사

— 청년2부: 이재환 안수집사

대 상

— 청년1부: 20~26세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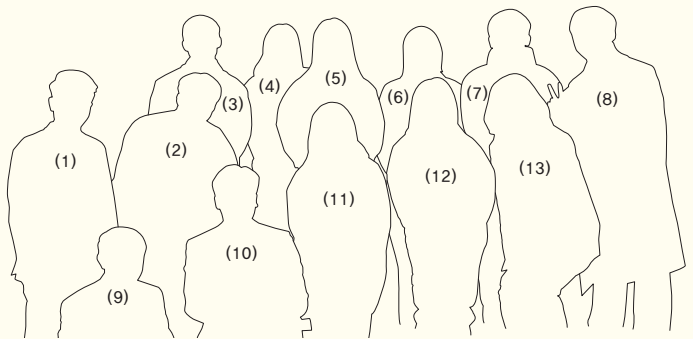
— 청년2부: 27~39세 청년(미혼)

예 배 장 소

— 본당 지하 1층 아담스홀

예 배 시 간

— 주일 오후 2시



(1) 이금환 집사 청년1부 부장

(2) 박은덕 청년1부 회장

(3) 강건욱 청년1부 부회장

(4) 김원진 청년1부 회계

(5) 박다운 청년2부 회계

(6) 표민아 청년1부 서기

(7) 배대경 청년2부 부회장

(8) 이명규 청년1부 서기

(9) 이재환 집사 청년2부 부장

(10) 서성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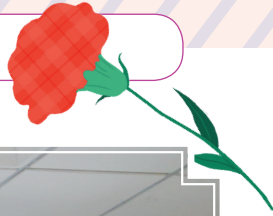
(11) 정민주 청년2부 서기

(12) 김원주 청년1부 총무

(13) 신유빈 청년2부 회장

김고은 청년2부 총무

최성민 전도사



새 가족 부

지도교역자

— 이태연 목사

부 장

— 강이철 장로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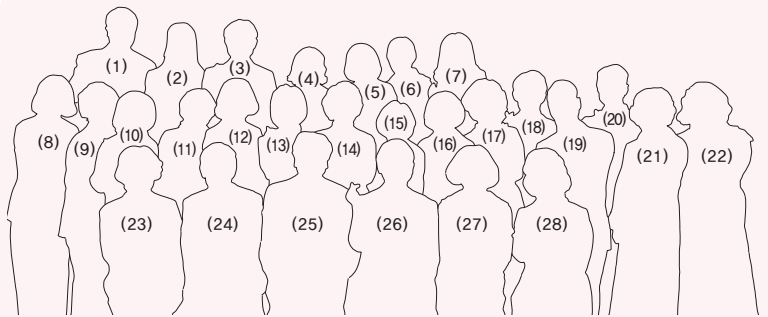
— 등록 신청한 새가족

예 배 장 소

— 본당 2층

예 배 시 간

— 주일 오전 10시 40분



- | | | | |
|-------------|-------------|--------------|-------------|
| (1) 표동철 집사 | (8) 강영주 권사 | (15) 신점숙 집사 | (22) 장미숙 권사 |
| (2) 김은조 집사 | (9) 오선자 사모 | (16) 이미경B 집사 | (23) 신동숙 권사 |
| (3) 강재석 집사 | (10) 김남희 집사 | (17) 이미향 권사 | (24) 조혁상 집사 |
| (4) 최정아 집사 | (11) 최미향 권사 | (18) 황갑호 집사 | (25) 이태연 목사 |
| (5) 김영숙B 집사 | (12) 정송희 권사 | (19) 윤석구 집사 | (26) 강이철 장로 |
| (6) 금현주 권사 | (13) 최종순 집사 | (20) 진시흥 집사 | (27) 최호진 권사 |
| (7) 윤정순 집사 | (14) 이영숙 권사 | (21) 진선미 집사 | (28) 이옥자 권사 |



신임 교역자 인터뷰

최성민 전도사

2023. 2. 5 부임

· 찬양사역
· 청년부 지원

1. 신앙 Story (내가 만난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1991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렸을 적에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신 것들은 제가 싫어서 한 것이 아닌 저를 사랑하셨기에 원하신 것들이었고 그 사랑을 받아 아들인 이후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 러브 Story

저는 성경인물 중에서 ‘바나바’가 가장 이상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당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을 알아보았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사도바울’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많은 종이지만 저를 이끌어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3. 소망 Story (섬기는 부서에 대한 소망과 비전)

먼저 대구 제일교회에 부임하여 좋은 찬양팀과 좋은 부서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재 주일 오전 2부 찬양팀, 금요기도회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어느 찬양단 하나 소중하지 않은 찬양팀이 없고 열정이 가득한 분들로 뭉쳐있는 팀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찬양 팀원들과 함께 더욱더 뜻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보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찬양과 더불어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그래서 외부 찬양사역도 기회가 온다면 찬양 팀원들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열정을 불태운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 믿고, 맡기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4. 기도 Story (2023년 기도제목)

저의 큰 기도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찬양사역자로써 오로지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며 내가 높아지지 않기를, 주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대구 제일교회 찬양팀들이 더욱 부흥하고 커져서 식지 않는 마음으로 매주 뜨거운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불령동상



큐티 소그룹 인도자 과정(큐소인) 수료 소감

주님의 손에 빚어져간 나



김민정B 집사

어쩌다 보니 난 어른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치과의사가 되어있었고,
어쩌다 보니 난 3형제를 자녀로 둔
엄마가 되어있었고,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았다. 주일, 교회 앞마당만 밟고 가는 건 뭔가 결핍된 느낌이었다. 주보에 순모임을 할 교인을 찾고 있다는 광고를 보고 나는 나의 순을 만났다. 그곳에서 '어쩌다 보니'의 내 삶이, 그분의 섬세한 계획하심이었음을 알아버렸다. 순장님의 큐.소.인 훈련에 참석해 보라는 말은 이제 그냥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다. 이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렸다.

2022.11.2.~12.14 때마다 그동안 해오던 치과 의료인의 삶을 접어둔 때라서 결심하는데 거리낄 게 없었다. 내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을 받은 순모임을 인도하는 역할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순장님이 더욱 귀하게 보인다. 그리고 보니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믿는 사람

들에 대한 소중함도 느껴지고, 아직은 어색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더해진다. 점점 주님의 손에 빚어져 가는 것 같다.

좀 더 나아지는 사람, 아니 성장해 가는 크리스천이 되어간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어주고, 주님의 것을 더 많이 얻어오는 과정인 것 같고, 저처럼 교회만 오고 갔지만 뭔가 아쉽고, 좀 더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다면, 약간의 용기를 내어 순모임, 더 나아가 큐.소.인 모임에 참여해보기를 바란다. | **불렙동상**



큐티 소그룹 인도자 과정(큐소인) 수료 소감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조인지 집사

2022년 10월 30일 저녁 8시쯤 카톡이 올랐습니다. 우리 영성 순의 순장님이 보내신 메시지였어요. 순장 교육(큐소인: 큐티 소그룹 인도자 훈련)에 추천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직장인이니 금요일 7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추천하셨는데, 이번에도 말씀하셔서 1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답을 드렸습니다. 순장으로 바로 섬겨야 하는지가 궁금하여 여쭙보니, 바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마음의 부담을 약간은 덜고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머릿속에 궁금한 생각들을 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함께 참여하시기로 한 분들과 장규현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7시에 딱 맞게 들어가다 보니 제일 늦었더라고요. 궁금한 점 하나는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장규현 목사님께서 큐소인 훈련 과정이 1주에 2회를 하여 5주간 10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주별로 과제를 준다고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과제는 '교재 예습하기, 추천 서적 독서, 매일 QT 묵상과 기도, 말씀 1구절 암송, 설교 말씀 적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큐소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후 11월 11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부터 '소그룹 운영의 실제'까지 10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받으면서 계속 느낀 거지만 장규현 목사님께서 시간을 참 잘 조절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겠지요? ^^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 다시 생

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핵심적인 통치원리는 사랑임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증거됨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니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부족함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멜로디와 가사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과 쉼,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큐소인을 통해, 함께 하는 순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요?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장규현 목사님, 함께 참여하며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신 김영숙B 집사님, 윤정순 집사님, 최정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 불현동상



New family welcome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하성용 이현숙 _ 4교구 32구역



박은경 _ 2교구 36구역



최정복 _ 1교구 2구역



최미지 _ 1교구 26구역



김태희 _ 2교구 39구역



김진원 최지은 _ 1교구 13구역



이혜리 _ 1교구 32구역



이동희 _ 3교구 9구역



김정국 정영연 _ 4교구 7구역



진서하 _ 4교구 33구역



박상훈 김진솔 _ 1교구 17구역



허준채 김민경 _ 3교구 2구역



정선주 _ 2교구 7구역



최영순 _ 2교구 26구역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김도근 성도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하고 계시는가요? 누군가를 처음 본 순간 온몸의 세포들이 살아 소리치는 듯한 전율을 느끼거나 자석처럼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상대방에게 눈을 떼지 못하거나 주변을 뱅뱅 맴돌았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첫인상은 누군가를 처음 보면 몇 초 안에 첫인상이 만들어지고 상대에 대한 나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합니다.

풀 내음 가득했던 2022년 여름 처음 제일교회 마당을 밟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온 여자친구와 교회 마당을 밟고 내뿜은 제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내 교회가 될 것 같아." 여자친구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마찬가지로."라고 답해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기회도 없이 교회에 갔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저에게 교회에 와서 느끼는 첫사랑의 감정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고, 그 감정이 꽤 강했는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뚜렷하게 납니다. 지금에 와서 그때를 회상해보면 '아직 예배를 드리기도 전인데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밀려드는 감동과 은혜는 130년 전 선교 사님들로 시작해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영성과 하나님의 인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2023년 표어인 'BLESS' 설교를 듣고 참 많이도 회개했습니다. 직장과 가족들을 향한 기도가 부족했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고, 그들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생리학적 유통기한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도 내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열어 놓지 않는다면 그 사



주일 예배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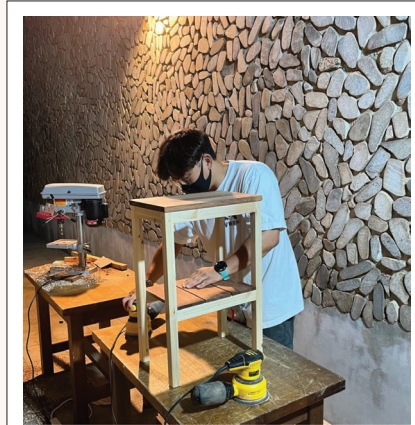
랑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짧지만 그간 살아온 삶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고 받아진 사랑과 은혜를 민
 감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예배, 말씀 읽기, 기도, 성도
 와의 교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
 으나 그렇게 받아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
 변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고, 온유할 수 있으며, 자랑,
 질투나 미움이 없이 BLESS의 삶을 살아보리라 용기
 내서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 끝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창운 목사님, 처음 제일 교
회에 와서 지금까지 친절함과 기도로 응원해주신 이
영숙 권사님, 마나바로 섬겨주신 신점숙 집사님, 캘리
그라피 수업으로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오선미 집사님, 매주 목요일 목공 반에서 교회 생활
과 목공 수업으로 도와주신 이경훈 집사님, 김기중 집
사님, 최창열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대구제일교회 성
도들에게 영성 가득한 대구제일교회에서 마음껏 하나
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길 기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불행동상



캘리그래피 발표작



목공 수업 중



복공반 수업때 교회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찡찡~



저녁 산책중 교회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찰칵~

삶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나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최진훈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삶을 꾸려가셨나요?

‘2021 한국 부자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자산, 즉 현금 1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현금 자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대한민국에 총 39만 3천 명이 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0.7%에 해당하는 인구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는 이런 부자가 약 1만 8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부자가 가장 많은 순위 5위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자기 스스로 집을 이룬다'는 뜻으로, 현재 부자의 개념을 도입해보면 맨손으로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 중 자수성가한 사람의 비율은 23%라고 합니다. 23%.. 저는 이 23%에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본주의의 대표주자 미국의 자수성가 비율은 약 63%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인 중국은 97%, 일본은 73%입니다. 철저한 신분 계급 제도인 '카스트'가 있는 인도는 33%입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는 자수성가를 통해 부를 축적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수많은 청년 중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 또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말에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평일에는 회사에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휴가도 한 번 가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또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았고, 인내하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벼락 거지'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든 부의 축적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일하고, 공부하고, 주식, 코인, 부동산 등등 조금이라도 더 벌고, 그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죠. 저는 이러한 길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인생의 목표였고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저의 삶

의 의미는 돈이었습니다.

소련 강제 노동 수용소의 섬뜩한 현실을 치밀하게 기록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삶이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비웃습니다. 돈을 더 벌어도, 더 나은 직장으로 자리를 옮겨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 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아왔던 '행복한 삶'을 위한 저의 공든 탑은 코로나, 경제적 위기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에 의해 너무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한 사람을 만나는 인연 혹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멘토가 있나요? 멘토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멘토, 복음의 사람, BLESS를 행하는 사람. 저



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서울에 있던 저를 대구로, 대구로 온 저를 대구제일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저의 멘토이자 은혜, 혹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주었던 그 분의 이름은 '김도근'입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었고, 상담해주었고, 함께 밥을 먹고, 항상 부족했던 저를 아낌없이 응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다려주었습니다. 저는 멘토를 존경했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의 커리어가 부러웠고, 그 사람의 직업적 성공이 부러워 대구까지 오게 되었지만, 함께 지내는 나날이 지속될수록 단순히 허울이 아니라 그의 '삶'이 궁금해졌고 또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멘토의 삶을 지지해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삶에 지쳐 쓰러지려 할 때 "그러면 같이 교회를 나가보지 않을까? 끝나고 같이 밥 먹자!"라는 그 말을 시작으로 31년 동안 종교 없이 돈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복음의 사람이 돼라, BLESS를 실천하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지만 그 말이 무엇인 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에 이끌려 서울에서 대구로, 교회로 그리고 왜 김도근 선생님의 삶이 부러웠고, 무엇이 궁금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은 <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 나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시련은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나의 행운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다.>라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과 같았던 나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만나 색이 칠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멘토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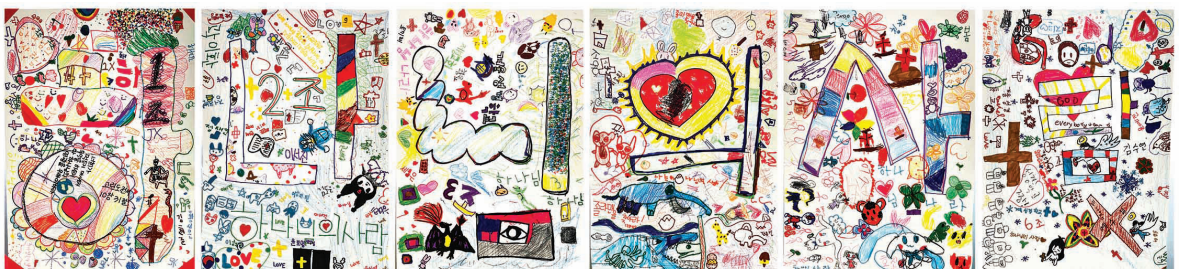
우리는 항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속에서 진짜 화평이란 무엇인지, 삶의 의미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 순간들은 나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닌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은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저의 멘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통해 누군가의 복음의 삶을 살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 불행동상



초등1부_겨울 성경학교



'하나님의 사람' 협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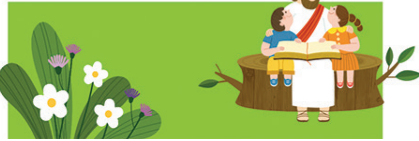


초등2부_봄 성경학교



대구제일교회 초등2부 봄성경학교 "나+너=우리"

일시 2023년2월18~19일(무박2일)
장소 대구제일교회 100주년 기념관
문의 010.4443.2974(김주광전도사)



중등부 겨울 수련회



[한계] 를 뛰어넘다.

대구제일교회 중등부 동계 수련회

WHEN? 2월 19~20일

WHERE? 교육관 4층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분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나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원손잡이 예후이라 [삿 3장 15절]



청년부_겨울 수련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



임이삭
고등부 회장

이번 겨울 수련회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야외 수련회, 그것도 제주도여서 그런지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첫날, 새벽에 일어나 공항을 출발해 아침 일찍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묵을 숙소에 도착한 후 우리는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에 관한 내용을 듣고 제주선교 탐방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며 힘들기도 했지만, 이기풍 목사와 그의 선교활동에 대해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끼리 돌아다니면서 1학년 후배들과 3학년 선배님들과 친하게 지내서 좋았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한림교회에 갔습니다. 먼저 이정이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레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한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게임을 했는데 팀을 구성할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한림교회 학생들을 섞어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림교회 학생들과 경쟁, 그리고 협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나름 신기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이후 우리는 한림교회에서 설교 및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수많은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대부분이 저에게 좋았고 위로가 되었지만, 저는 그중에서 현재 고등부 축복 송인 “그분의

열심”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평소에 이 내용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드린 다음 기도회 시간이 왔습니다. 어렸을 땐 잘 느끼지 못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니까 기도회를 할 때 어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그리고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던 한림교회에서의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밤새워 놀았겠지만 다음날 한라산을 가야 하는 관계로 첫날은 일찍 자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이번 수련회에 메인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한라산 등반을 했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 5시부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하게 올라갔지만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로 했고 그 결과 한라산 등반이라는 대업을 이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정상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느낀 것은 하

나눔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라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그리고 ‘우리’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고 결국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한라산 등반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느낀 한라산 등반이 끝나고 우리는 키세스 존에서 사진을 찍을 계획이었으나 우리가 모두 힘든 관계로... 저녁 예배만 드리고 둘째 날 일정을 끝냈습니다. 일정이 끝나고 수면 시간이 다가왔으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수련회에 가면 자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일부 피곤한 애들은 일찍 잠에 들었지만, 대부분 애들은 밤을 새우면서 청년 선생님들과 MT 게임을 했습니다. 덕에 청년 선생님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조끼리 함덕 해수욕장에서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조끼리 같이 점심도 먹고, 포토 시그니처 가서 사진도 한 컷 찍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렇게 조끼리 자유롭고 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공항으로 돌아가서 대구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2박 3일의 여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예그리나 고등부에 큰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겨울 수련회를 1학년 후배들이 빨리 적응하여 2학년, 3학년 선배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평소애, 교회에서 조용한 애들과 서먹서먹하던 애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여름수련회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담당하시고 계획하신 이정 이 목사님,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조인지 집사님, 홍지수 선생님, 최원석 선생님, 조를 잘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잘 대해준 청년 선생님들 재현이 형, 승원이 형, 영빈이 형, 하람 누나, 원진 누나, 여경 누나, 그리고 우리 예그리나 고등부 학생들에게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겨울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고등부 회장인 제가 아직은 매우 미숙한데 잘 따라줘서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감사합니다. 여름에도 이번 겨울 수련회처럼 모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정 때문에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여름에 함께해요. **불렙동상**



홀리클럽(Holy Club)을 아시나요?



엄기정 은퇴장로¹¹⁾

성시화운동의 유래

성시화운동은 16세기 초 칼빈에 의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1730년경 영국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와 동료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국을 다시 구원하자는 목적으로 "Holy Club"을 결성하였습니다. 한편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이 운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 차에, 1972년 춘천에서 당시 CCC 총재이셨던 김준곤 목사님에 의해 다시 시작한 복음화 운동이 홀리클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1991년에 전용태 장로가 춘천에서 기관장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였고, 1995년에는 전용태 장로가 춘천지점장으로 그리고 양인평 장로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여 춘천에서 성시화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96년에 춘천홀리클럽이 창립되었고 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시화운동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복음을 전파하되 한 도시 내 전 교회(Whole Church)가 도시 전

영역(Whole City)에 전 복음(Whole Gospel)을 전하고자 하는 3전 운동입니다. 대구에서는 목회자 및 교회(성시화운동본부)와 평신도 및 직장 중심의 홀리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가 聖市化를 지향하고 있는 협력적 공동체입니다.

대구 · 경북지역의 역사와 활동들

1999년 9월 21일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먼저 창립되었고 대구 · 경북 홀리클럽은 2000년 6월 29일에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35개 직능단체 신우회 또는 선교회(교수선교회, 의사선교회, 약사선교회, 공무원선교회, 미술선교협회, 기독음악인회, 대구은행선교회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 · 경북 홀리클럽은 나부터 변화된 삶을 살고, 총체적 복음운동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거룩한 도시(聖市化)로 변화시키자는 7성 운동을 펼쳐나가는 초교파적 평신도 모임입니다.

11) 대구 · 경북 홀리클럽 2023년~2024년 대표회장

홀리클럽의 7성 운동

성민(聖民, 聖自)운동 정직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자는 자기개혁운동

성가(聖家)운동 이혼과 이로 인한 결손가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바 가정을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자는 운동

성회(聖會)운동 예배회복을 통하여 교회갱신과 일치를 이루자는 운동

성직(聖職)운동 직장인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생각하여 직업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운동

성사(聖社)운동 각종 범죄와 거짓말이 많은 사회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정화하자는 운동

성국(聖國)운동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 선교 민족이 되기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전개하자는 운동

성세(聖世)운동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평화와 지구촌 복음화에 기여하자는 운동 | 불평등상



성시화 수요 정기 아침기도회 안내

◇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 장소: 서현교회 서현빌딩 10층 예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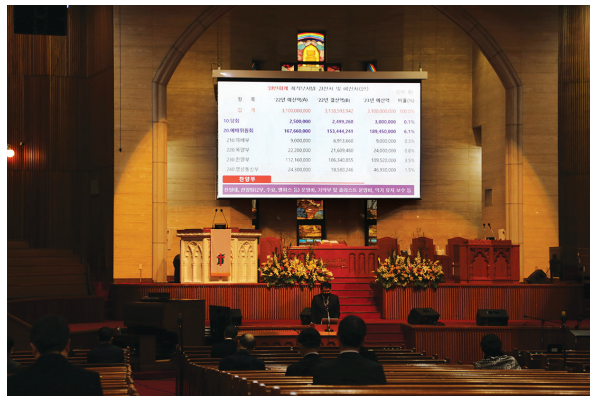
2023. 01. 01. 송구영신예배



2023. 01. 01. 역대 물댄동산 특별전시회



2023. 01. 08. 제직수련회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 2023. 01. 15. 여전도회 헌신예배



🔊 2023. 02. 17.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기도회



🔊 2023. 02. 26. 시온성가대, 필리핀 상토토마스대학합창단 연합찬양





2023. 02. 26. 3.1절 기념 감사예배



2023. 03. 01.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 제 104차 3.1절 기념예배



2023. 03. 04. 순개강 수련회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 2023. 03. 10. 제 36회 권사수련회



🔊 2023. 03. 12. 남선교회 헌신예배



🔊 2023. 03. 26.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2023. 01. 29. 키르기즈스탄
김보현 · 박소연 선교사 온라인 선교보고회



2023. 02. 05. 칠레
하봉욱 선교사 온라인 선교보고회



2023. 02. 19. 체코
심영호 선교사 선교보고회



2023. 02. 26. OM
김일권 · 장인경 선교사 선교보고회



2023. 03. 05. 방글라데시
홍두석 · 박찬경 선교사 선교보고회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 2023. 04. 02. 세례 · 입교식



🔊 2023. 04. 02. 임병철 목사 환송식



🔊 2023. 03. 15. 부활절연합예배
준비 기도회 1 : 서현교회



🔊 2023. 04. 05. 부활절연합예배
준비 기도회 2 : 대구제일교회



외부 기고문_우리 결의 이단

2023년, 이단들의 진화하는 포교전략과 대응 방안

서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1]



작성 _ **탁 지원** 소장

성결대학교 신학과,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Th. M) 졸업

전 한국기독교잡지협회 회장

현 월간 현대종교 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백석대학원, 한세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신대원 등

현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 코스타 강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대종교¹⁾라는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탁지원 소장이라고 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소망하며, 아울러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에는 결코 영적 전쟁이 빠질 수 없기에 네 번에 걸쳐 이단의 현황과 대처, 아울러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단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신앙생활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현대종교는故 탁명환 소장이 1971년 현대종교와 국제종교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단 사이비종교 문제를 연구하다가 1994년 2월 19일 이단의 테러로 순교함에 따라 아들 되는 탁지원 소장이 대표로 취임하여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故 탁명환 소장은 1966. 통일교가 기독교와 다른 단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1976. 전도관, 1969. 용화교, 1973. 동방교, 1975. 섹스교, 1980. 소위 구원파, 1983. 대성교회(현 평강제일교회), 정명석의 JMS, 1984. 영생교, 1985. 하나님의 교회, 1988. 다미산교회, 1989. 만민중앙교회, 1993. 신천지, 1994. 신나라 아가동산, 1997. 단학선원, 2008. 전국 신천지교회 및 신학원 현황 파악, 2010. 대학가의 이단 활동 정리 등 기독교계 및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집단들에 대한 문제를 사회에 고발하여 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월간 현대종교는 한국교회와 성도는 물론 사회의 종교에 관한 바르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특히 이단·사이비 종교 등 문제성 종교에 대한 해악을 알리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계에 알려져 왔다. 50여 년 이상 매달 수백 건의 제보를 받아 교회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사이비들을 취재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월간 현대종교와 50권이 넘는 책으로 엮어 사회에 알려 오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단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우선순위의 과제임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단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준행함으로 늘 현명한 경계와 대처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러나 이단 문제는 여전히 가정과 교회 등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맘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단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의 문제에도 관심을 뒀으면 한다.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 근본적인 이유이겠지만 섬김과 나눔, 그리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이단 교육의 부재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족한 이의 앞으로 4번의 결친 제언에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주길 부탁드리며, 그 관심이 모아져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최근 이단들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사회봉사 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는 터져지는 사건·사고, 연합기관들과 교단의 분열 속

에 점차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걷고 있다. 가짜는 진짜같이 살며, 진짜는 가짜같이 사는 작금에, 그럼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을 안고 더욱 섬김과 나눔, 건강한 삶의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이단 대처의 첫걸음은 걸만 보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필필자의 <현대종교>에는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많게는 매달 1,000여 통 가까이 되는 상담(제보 포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외 이단 단체는 예상대로 신천지였고, 다음이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총 12 단체였다. 이단은 아니나 이단성이 있거나 말 많은 단체도 제법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기성교회의 성도들, 내지는 비 종교인에게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때로는 사회, 국가적으로도) 여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단의 전략 중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이름)를 교묘히 숨기며 포교한다는 것이다(요즘은 그 전략들이 진화되고 변형되어 위장교회처럼 그들 정체를 도통 알 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는 온라인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접근해오는 일이 늘었다). 이단 문제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검증되지 않은 곳이나 사람들이 종교 문제로 접근해 올 때는 정확하게 교단의 이름(○○교단 ○○측까지)과 교회 이름,

대표자 등의 배경을 확인해봐야 하고, 주보, 전단지, 웹사이트 등도 살펴본 이후에 관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전히 심각한 이단은 역시나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다(최근 주목이 필요한 곳은 중국에서 건너온 전능신교(일명 동방 번개)라는 이단인데 요즘 계속해서, 여러모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세 곳을 가장 주요한 이단, 흔히 ‘빅3’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대부분 가가호호 방문과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하기에 ‘설문 조사를 하자’거나 ‘동영상을 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때 관계 자체를 거절하고, 설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연락처나 이름 등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 포교를 차단할 수 있겠다. 이단 이탈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만 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포교의 50%는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튼 신천지는 워낙 독특한 포교 방식으로 미혹했으며(교회 안에 들어와 3년~10년 정도 성도로 활동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다. 2021년 초에는 교주의 지시로 모락에서 공개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포교 방법이 바뀌기도 했다.), 또 계속해서 전략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에 항상 교회에서 포교 방법을 체크하여 성도들에게 주지시켜

줘야 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가까운 이라 할지라도 검증되지 않은 신앙적 교제, 성경 공부 등은 절대로 안된다. 부디 걸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단의 공격 앞에 때로는 무대응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젠 수비를 넘어서서 공격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예비 청년의 때와 청년의 때가 이단 문제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청년들이 속한 어느 곳도 이단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일터까지 여러 미끼로 포교하는 이단들이 청년들이 있는 어느 곳을 예외로 두겠는가? 그들 조직을 지키고, 넓히기 위해 청년들의 열심과 열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은 늘 틀리지 않았다. 그중 압권은 대학가이다. 아예 대학을 만드는 수준에다가 JMS를 필두로 신천지, 세칭 구원파(특히 박옥수파, IYF)등이 문화동아리나 자



원봉사동아리 심지어 선교단체 등으로 둔갑하여 활동하고 있다. 때로는 총학생회나 총동아리연합회 등 학교의 주요 단체를 장악하여 포교의 손길을 뻗치고 있으며 앞의 ‘TYF’ 라는 단체는 대부분 대학(중·고등학교까지)에 포진하여 값싸게 해외에 나가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해외봉사단의 이름으로, 그리고 ‘중·고생 및 대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등으로 포교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엔 신천지가 ‘위아원’ 이라는 청년조직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현혈 부분에서 기네스북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때로는 기독교(신학)대학 안에서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 확신범의 수준으로 신학생 하나 미혹하는 것을 일당백이라 여기며, 심지어 기성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일도 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군대 안의 이단 문제다. 군대는 복무 연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폐쇄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니 이단의 청년들은 군대를 황금어장이라 믿고 있고, 또 그들만의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입대하고 있는 것이리라. 이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병들은 그들 선임병이 조금만 잘해주어도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되니 이단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포교 방법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군대 내 스마

트 폰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단들의 사병 관리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직장 이단 동료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예전 월간 <현대종교>를 통해 기사화된 정종훈 교수의 조언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첫째, 상사라 할지라도 이단 전도에 대해서는 ‘아니오’ 라고 명백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신앙을 전하는 자유도 보장하지만, 신앙을 거부할 자유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둘째, 상사가 믿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곳의 특징이 무엇이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별적으로 논쟁하며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의 신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상사에게 자신의 기독교인 됨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줄 때 상사의 이단 신앙에 변화를 줄 수 있어서다.

끝으로 이단에 빠진 상사를 개인적으로 설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단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유학생이나 어학 연수생들은 외로움과 어려움

을 참아내며 학업을 이어가다 보니 누군가가 조금만 잘 해줘도 쉽게 마음 문을 여는 특징이 있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장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디인지, 주보를 살펴보고 사이트를 한 번 둘러보거나 아니면 그곳 교역자들에게 자녀들이나 친구들을 잘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순결과 성교육 단체로 위장하여 자신들 교리를 은밀히 전하는 일들이 여러 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아예 이단에 속한 청년들이 사범대학 등에 입학해 교사가 되어 합법적 공간 안에서 자신들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도 있다. 때로는 교사들과 친구들이 자신이 속한 곳을 숨기고 친분으로 포교하는 방법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종교(종교가 기독교라면 출석하는 교회)의 배경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단들은 늘 진화하고 있기에 ‘설마’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반드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요즘 이단들은 대학을 만드는 수준이다. 웬만큼 대처해서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대학

신입생들과 중·고등부에서부터 확실한 대처(교육)가 필요하다. 특히 고3에서 대학가는 예비 청년의 때에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고 있기에 수능 이후 남은 시간을 통해 교회마다 이단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20년 가까이 죽으라고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시기에 이단으로 인해 가족들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어찌면 이러한 일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 무조건 공감해 주어야 한다. 대학의 동아리는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곳은 금물이며, 학교 앞에서 설문조사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일이 많으니 그 배경이 확인되지 않았을 시에는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시켜주길 바란다. | 불행동상

- 다음 호에 계속 -

부제

1. 서론 :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1]

2. 본론 :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2]

3. BIG 3 이단 :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4. BIG 3 이단 : 구원파와 결론

- 관련 성경 구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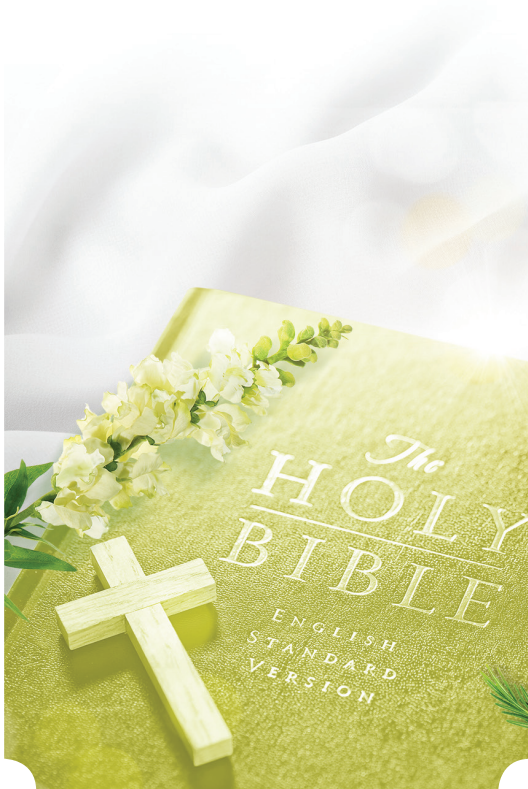
요한1서 4:1~6, 마태복음 24:5, 36

이단을 이기는 기독교 교리[1]

성경론



장규현 목사



위기의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 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대략 800만 명 전후로 추산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중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적어도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으로 약 25%가 이단인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마다 이단 출입 금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교회 밖 성경 공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신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신학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으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신학을 통해 체계적인 교리가 형성되어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리의 형성과정을 보게 되면,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리를 체계화해왔음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교리가 어떤 의미인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안셀름(Anselm von Havelberg)은 "믿는

자는 이해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현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한 고민과 분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과정이 생략된 믿음 생활은 쉽게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홍보출판부의 요청에 따라 4회에 걸쳐서 자생력 있는 신앙으로,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기독교 교리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권위

가장 먼저 성경론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경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자연종교와는 신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연종교는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을 통해 '신'에게 도달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성을 통해 신에게 도달하려는 시도는 이신론으로 나타났고, 자연을 통해 도달하려는 시도는 원시종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범신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진리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 성경의 권위가 심각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많은 학설이 있으나, 모두 다룰 순 없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성경의 내용이 인간의 합리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

라고만 주장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지요. 교회가 시대의 요청을 무시한 채, 성경의 권위만을 강조할 때, 오히려 교회는 더욱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과 믿음으로 받아야 할 부분들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단의 특징 : 성경의 자의적 해석

많은 이단이 처음 성도들을 미혹할 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접근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집착하고, 비유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개역한글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들이 개역 개정에서 변경됨으로 개역한글 번역에 집착합니다. 결국 이단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주입하여, 이단의 논리에 빠져들게 합니다. 중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완벽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성경의 계시가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아직 감추어져 있다고 왜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새로운 계시를 받은 교주가 나타나 제대로 풀어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중심의 바른 신앙

중세의 교회는 성경 해석의 권한을 교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번역되지 않았고, 소수의 사제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방향으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는 '성경을 성경 되게 하라' 말했으며,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했던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사건들을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적인 간극을 이해하며, 성경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신도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칼 바르트라(K. Barth)는 신학자는 성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또 어떻

게 구원하는지를 계시한 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말씀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이지요. 인간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죄인 된 인간은 '위기'를 느끼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을 알게 될 뿐입니다.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인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인간이 말씀을 듣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체로 있는 동안 성경은 아직 인간의 언어일 뿐이고, 그 설교는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인간의 말로 있는 동안, 그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통해 선포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구조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넘쳐나는 유튜브의 영상 속에 정제되지 않는 해석과 교리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알면 도움 되는 기독교 교파 이야기 [1]

한국교회 장로교단 분열에 대하여



서성준 목사

“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 중심의 선교와 자생적인 형태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특별히 선교사 중심의 선교는 당연히 선교사들을 파송한 본국의 교단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한국교회도 각 선교사의 교단을 따라 세워져갔다. 그 중에도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조선 땅에 파송되었기에 초기 한국교회는 장로교와 감리교 중심으로 정착, 성장해갔다. 거대한 두 교단은 해방 이전까지 각각의 단일 교단을 유지해 왔으나, 해방 이후 분열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장로교단의 교회, 교인으로서 한국교회 장로교단은 어떤 분열의 과정, 분열의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첫 번째 분열: 예수교 장로회(고신)

고신 측의 분열은 먼저 일제 치하 속에서 한국교회가 마주했던 신사 참배에 대한 배경이 필요하다. 신사참배에 대하여 첫째는 신사 참배를 단순한 국가 의례로 볼 것인가?, 둘째는 종교적인 우상 숭배로 볼 것인가? 라는 견해 속에서 한국교회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졌다.

- ①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
- ② 우상 숭배로 보고 철저히 거부하는 이들
- ③ 일제의 압력과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순응한 이들



서문로교회(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

해방 이후 일제 식민지로 인한 과거 청산의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는데, 위와 같은 부류의 그룹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갈등의 시작점은 경남노회에서부터이다. 1945년 9월 18일 경남노회가 복구되어 재건 노회를 조직했는데, 이때 해방 후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옥고를 치르고 나온 출옥 성도들 그룹들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죄를 자숙하자는 ‘자숙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목회자들이 노회 석상을 주도했기에 통과되기가 어려웠다.

이 일과 함께 해방 직후 장로교에는 조선신학교만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신학교는 신사참배를 허용했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개방적인(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경남노회는 평양신학교의 계승을 표방하며 새로운 신학교인 고려신학교를 1946년 9월 개교하였다. 이 일을 놓고 출옥 성도 중심의 노회 인사들은 적극 찬성하는 고려신학파가 있었고, 고려신학교 승인을 반대하는 교권파, 그리고 중도파가 존재했다. 어느 파가 노회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고려신학교를 인정/불인정 등의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경남노회는 고려신학교를 지지하는 입장의 고려파는 경남법통노회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경남노회로 나뉘게 된다.

1951년 5월 부산에서 열린 제36회 계속총회는 ‘고려신학교 및 그 관련 단체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재천명하자, 결국 1952년 9월 11일 경남법통노회는 총노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고신교단’의 조직이자 장로교의 첫 번째 분열이다.

장로교의 첫 번째 분열을 보며 신사참배에 대해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일제 식민 시절, 분명 친일 목사 및 성도들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신사참배는 일제의 압력과 폭력에 못 이겨, 교회와 생명의 보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리라 본다. 이것에 대한 과도한 정죄의 판단을 둘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한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외에도 보수 선교사들의 영향력, 신학적 갈등 등의 요인도 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옥고를 치르다가 출옥한 안동서부교회회를 시무했던 봉경 이원영 목사의 태도가 좋은 귀감이 되리라 여겨진다. 고려파 인사들이 이원영 목사를 회유하려 했으나, 신바리새주의를 경계하라고 권면하며 기독교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요청했다. 또한 1954년 5월 총회장으로서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범죄를 회개하고 이에 대한 27회 총회를 통해 결의한 신사참배에 대한 잘못된 성명을 취소하였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두 번째 분열: 기독교 장로회(기장)



중부교회(기독교장로회)

장로교 두 번째 분열에 있어서도 신학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해방 직후 한국교회의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는 김재준, 송창근, 채필근 등의 주도하에 설립된 조선신학교였다. 그러나 보수적 신학의 분위기에서 자라온 대부분 장로교 인사들과 선교사들은 조선신학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조선신학교가 친일적이고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띄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초는 1947년 5월 평양신학교 학생 51명이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주의 신학과 성경의 고등비평, 자유주의 신학과 합리주의 신학을 배척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진정서에 대하여 김재준은 장로교 신조 1항을 따른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박형룡은 그의 성서관은 파괴적 고등비평의 성서관이자, 교리 문제에 대한 그의 변명은 신신학의 교리관이

라 단언하였다.

결국 1952년 제37회 총회에서 김재준이 ‘성경 유오설’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소속 노회인 경기노회에 제명을 지시했다. 이에 조선신학교와 그 지지 세력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처단했다고 여기며 불법임을 천명하고 총회를 규탄했다. 또한 이미 총회는 조선신학교 졸업생에게 교역자 자격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며, 결국 조선신학교 측의 별도 총회가 1953년 6월 10일에 별도 총회를 열었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의 두 번째 분열인 기독교 장로회(기장) 교단이 생성되었다.

장로교 두 번째 분열 과정은 신학적인 논쟁에 있었다고 보인다. 보수적인 미국 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형성된 신학과 신앙의 토대가 자유롭고 진보적인 신학적인 성향과의 충돌로 인하여 분열의 아픔이 발생한 것이다. 신학의 성향이 교리적으로 심각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면 분명 철저하게 차단해야겠지만, 신학의 폭을 넓히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성도 존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습들은 당시에는 매우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말씀과 행보를 보이셨다. 그러나 그 안에 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었듯이, 우리 역시 기독교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배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견

고한 신뢰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신학과 사
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 역시 동반되어
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분열: 예수교 장로회(통합)과 예수교 장로회(합동)



대구서문교회(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대분열
이 있는데, 바로 장로회 통합 측과 합동 측의
분열이다. 이 분열 과정에는 세계교회협의회
가입 문제와 신학교 부지와 관련된 부분이 주
요한 원인들이다.

먼저 에큐메니컬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직
후 창립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는 전 세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했다. 한국교회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
서 개최된 창립대회에 참석 후, 세계교회협의
회 가입을 제안했고 총회는 받아들였다. 그러
나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진영
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
를 가지고 있었다. 주된 이유는 세계교회협의

회가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기관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1954년 에반스톤에서 열린 2차 세
계교회협의회 총회 이후,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더욱 갈리게 되었다. 총
회에 참석한 대표들 중 일부는 세계교회협의
회가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 연합
을 의미하는 유니티(Unity)이지 교회 합동을
의미하는 유니온(Union)이 아니라고 했으나,
다른 일부는 교리적으로 혼합주의적이며 용공
적이라고 보고하며 더욱 대립된 분위기가 형
성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53년 휴전 후 총회
는 신학교 건물을 옮기려고 했는데, 당시 교장
이었던 박형룡은 신학교 부지 알선을 위해 접
근한 인물을 이사회와 상의 없이 기용 약 3천
만원이라는 거액을 주었는데 결국 기만당하
고 1957년에 ‘금융 사기 사건’ 으로 물의를
빚게 되었다. 이 일로 박형룡은 도의적 책임
을 지고 교장직을 사임했으나, 세계교회협의
회를 반대하며 복음주의협의회 진영을 대표하
는 박형룡의 지지 세력들은 이 사임에 반대하
며 동시에 박형룡의 일선 후퇴가 보수신학의
후퇴라 주장하고 또한 세계교회협의회가 용공
적 자유주의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장로교 분열의
직접적인 계기가 발생하는데 1959년 대전에
서 개최될 제44차 정기총회에 파견할 경기노
회 총대 명부였다.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대를 지닌 노회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에큐메니컬 측과 복음주의협의회 측으로 양분

되어 있었다. 두 진영에서 선출한 다른 총대 명부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고 결국 총회는 에큐메니컬 측의 총대 명부를 채택하게 되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직 총회장들이 11월까지 총대를 다시 선임해 오도록 했으나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연동교회와 승동교회에서 각각 총회를 속개함으로 장로교 총회는 완전히 둘로 나뉘게 되어 연동교회에 모인 이들은 통합, 승동교회에 모인 이들은 합동이라 불리게 되었다.



대구제일교회(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이후 선교사들을 통해 적극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교단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합동 측은 신학적으로 유사한 노선을 걷고 있던 고신 측이 통합을 시도하여 1960년 12월에

전격적으로 교단 통합을 성사시켰으나 3년 만에 신학교 문제 처리로 다시 분열되고 말았다.

장로교 세 번째 분열 과정 역시 신학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출발된 분열이라 볼 수 있겠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주관적인 관점과 판단, 시각으로는 연합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연합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는 주관적인 나의 입장과 관점으로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면서 상대 입장에 대한 바른 정보와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다시 분열과 상처의 아픔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함께할 때 건강한 한국교회의 장로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불렙동상**

[참고자료]

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찬, 『한국기독교의 역사 제3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 임희국 지음,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3. 김홍수, 서정민 엮음, 『한국기독교사 탐구』 (대한기독교서회)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S.F.Adams 작사 L.Mason 작곡; <통일 찬송가, 1983> 364장

내가 가장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는 초등부 시절 교회에서 찬송가를 여러 곡 따라 부르기를 했지만 가장 멜로디와 가사가 오래 기억에 남는 곡이었다. 그래서 늘 흥얼거리며 악기 연주 때에도 이 곡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 나의 애창 찬송가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후렴 가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희망이 아닐까.

- 임준희 안수집사 (시온성가대 대장)

이 찬송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901년 미국의 제25대 매킨니 대통령이 암살자의 흉탄에 맞아 운명을 할 때, 임종을 지켜본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통령께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 이제 나의 평생의 기도였다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1901년 9월 13일 오후, 미국 전역은 5분 동안 정적이 싸였다. 이 정적 후 매디슨스퀘어 광장에서 국장연합밴드는 「내 주를 가까이」를 연주하였고, 바로 그 시각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드린 추모 예배에서도 이 찬송이 불리었다.

이 시는 사라 애덤스(Sarah Fuller Flower Adams, 1805~1848) 부인이 5절로 작사하여 윌리엄 폭스(William Johnson Fox) 목사가 출판한 <찬송과 성가> 'Hymns and Anthems'에 처음 발표한 것이다.

곡명 「베다니(메이슨)」 'BETHANY(Mason)'는 로웰 메이슨(Lowell Mason)이 1856년에 작곡한 것이다. 「베다니」라는 곡명이 여럿이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 괄호 안에 작곡자 이름은 넣은 것이 관례이다. 메이슨은 이 찬송 작곡의 경위를 이렇게 썼다.

우리가 <안식일 곡조 찬송가> 'Sabbath Hymn and Tune Book, 1863'를 편집하고 있을 때, 같이 하는 친구들(Edward A. Park and Austin Phelps)이 나더러 「내 주를 가까이」를 작곡하라고 권유하였다. 그 시는 불규칙 운율이었다. 어느 날 밤, 잠이 깬 나는 행동안 어둠 속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조용한 가운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멜로디를 들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곡조를 완성하였다.

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S. F. Adams, 1841 종교 문학 시인이라기엔 당혹스러워 시 있는데 그 시대가 하느님이 달라고
보통으로 (영 28:12) BETHANY: L. Mason, 1856



작사자 사라 애덤스 (Sarah Fuller Flower Adams, 1805~1848) 부인은 1805년 영국 에식스의 할로우(Harlow, Essex)에서, 정치인이요 언론인인 벤저민 플라워(Benjamin Flower)의 딸로 태어났다. 1834년에 윌리엄 애덤스(William Bridges Adams)와 결혼하였다. 배우가 되는 게 희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 그는 건강이 나빠서 1873년에 세익스피어의 「맥베스 부인」역을 하고는 은퇴하였다. 그리고 작가로 돌아섰다. 그의 글은 여러 잡지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그는 런던에 있는 사우스플레이스 유니테리안교회 (South Place Unitarian Church)에 출석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이 찬송은 <안식일 곡조 찬송가> 'Sabbath Hymn and Tune Book, March 1859' 244쪽(989장)에 「베다니」, 'BETHANY'라는 곡명으로 처음 실렸는데 6/4박자로 실렸다.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가사도 이 곡조로 부르도록 되어있었다.

<영국 찬송가>에서는 'BETHANY' 곡조가 영화 「타이타닉」(Titanic)에서 배가 침몰 할 때 연주되어서 꺼림칙해서 그런지, 대개가 다른 곡조로 싣고 있다. 외국 찬송은 다 5절까지 있는데 우리 찬송에서는 5절을 빼었다. 5절을 번안하여 싣는다.

<5절> 내 생명 끝난 후 천국 가서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리
영원히 영원히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번역으로 <찬양가, 1894> 81장에 처음 실렸는데, <찬송가, 1908> 149장 편집 때 전면 수정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불멸의 찬송

<이상 출처: 오소운 목사.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성서원>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충분히 빛나고 있는 당신을 위한 일상 묵상”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저 자 _ 전대진
역 자 _ 이제롬
출판사 _ 넥서스Cross
출판일 _ 2022년 2월 10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 기아 대책 희망 대사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는 저자가 6년간 기록한 예수 동행 일기를 엮었다. 여러 사람 앞에 서는 일이 많은 저자가 예수님과 동행한 내용을 기록한 궁극적인 이유는, 받은 은혜 자체를 기억하기 위함도 있지만 혹여나 살아낸 일에 살을 붙여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려는 일종의 자기검열이기도 하다. ‘살아낸 것만 말하고, 나만 살아내지 않고, 남도 살아내도록 돕는 삶’ 이것이 저자가 꿈꾸는 성공한 삶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친 곳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대부분 거기서 그치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저자는 목사님께 감사에 배를 요청한다. 큰 사고였지만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사고를 통해 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다. 곳곳에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한 번쯤 해본 질문, 그에 대한 주님의 편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기록한 부분은 이 책의 백미다. 어느 날 저자가 “하나님, 하나님도 꿈이 있나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하고 묻자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신다.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무엇일

까? 묵상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내 사랑아, 네가 바로 내 꿈이야. 그리고 못 하는 건 너를 포기하는 거야.”

어린 시절, 우연히 캠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아이는 교회 뜰만 밟는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을 부단히도 찾았다. 돈이 없어 20원, 200원 현금하던 시절부터 교회 냉장고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될 때까지 주님은 한결같이 그의 곁에서 말씀하고 격려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었고 이렇게 그 삶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머리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막상 실천하려면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실천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다가 포기하고 만다. 그런데 저자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힌다.

이를테면 어느 날 문득 ‘고아와 객과 과부의 하나님’과 예배 때 ‘깨닫지만 말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던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면 즉시 식자재 마트로 가서 누군가를 위한 생필품을 사려고 둘러본다. 그리고 가만히 주께 묻는다. “주님, 그런데 무엇을 사서 누구에게 줘야 하죠?” 그러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날은 한 집사님께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하니 미혼모 시설 원장님을 연결해주신다. 이제 저자는 그곳에 있는 미혼모들을 위해 분유와 생필품을 담아 보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파송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파송하니, 너희는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라.

고아와 객과 과부의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

신 물질을 노예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저자 전대진이 말씀대로 사는 법이다. 한마디로 단무지다.

단, 단순하게
무, 무식하게
지, 지금 하는 것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고, 모임을 인도하고, 상담해주는 모습이 마냥 멋지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그 부족함을 통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저자는,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다 주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기다린다. 자기 뜻을 굽혀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구차하고 비굴해 보이는 순간이라는 걸 알지만 개의치 않으려 마음을 다 잡는다. 그리고 고백한다. 눈물이 난다고. 그러나 이것은 자존심이 상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주님 마음으로 살고 싶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사랑 없으므로 인해 흘리는 통회의 눈물이다.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는 아픔이 따른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을 말하고 있음에도,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용기를 준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길이 맞다고. 마음을 부여잡고 가는 그 길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 불행동상

註. 위의 내용은 출판사의 서평과 책 본문의 일부를 최무진 장로(홍보출판부 편집위원)가 편집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 여정



이동필 협동장로

역지로 끌려나간 교회

필자가 가정교사로 일했던 집엔 밑으로 아들 셋에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었다. 누나들은 공부도 잘했고, 인물들도 준수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누나가 필자인 가정교사에게 특별한 제의를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에 가자'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때만 하여도 유교 집안에서 자라나고 교육된 지라 기독교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고교 때도 옆자리에 같이 앉았던 짝꿍이 교회를 나간다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예 신은 없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날 가정교사 집 여학생이 말하기를

‘자기 교회에 멀지 않아 부흥회가 있으니 모든 교인은 무조건 한 사람씩 인도해 와야 하고(배가운동), 이를 위하여 이미 문서 약속으로 필자의 이름을 교회에 적어냈다’ 라는 것이다. 기가 차는 일이었다. 얼토당토않은 것이었다. 도대체 어찌하여 자기와 무관한 가정교사인 필자의 이름을 적어내었던 말인가? 고로 필자는 이 초청을 단숨에 거절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편지를 주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소녀 특유의 제스처로 필자를 뒹달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몇 날을 두고 계속해서 말이다. 결국 필자는 승복했다. "오냐 그러면 딱 하루만 가줄게" 그래서 교회를 '가주기'로 한 것이었다.

드디어 D-DAY가 왔고 저녁이 되자 교회를 가자고 손을 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면서, 오 마이 갓!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끌려간 것이 내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가본 것이다. 부흥회가 시작되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드디어 설교도 시작되었다. 필자는 매우 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터라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만 믿었기에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저것도 거짓말, 저것도 또 거짓말. 별 소릴 다 하네?"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것이 라곤 없었다. 그러던 중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했다. 찬양은 다소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었다. 심지어 그 찬양에서 무언가 마음속 깊이 화평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다음날도 역시로! 끌려가다시피 다시 교회로 갔다.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삼 일째는 정말 가지 않으려 변명

했으나 이왕 이름을 적어 내놔으니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간원하였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대학생회가 잘 운영되고 재미있으니 꼭 가담하기를 권유했고, 또한 KB 대학교 문리대 학장 XX씨 외에 교수도 여러 분이 나온다고 거명했다. 그들은 필자가 익히 알고 존경하는 분들이었다. 주일이 오자 아예 그 학생은 교회에 가도록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는 시인 서정주 씨의 '국화 옆에서'란 시의 한 구절이 지금도 문득 생각난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먼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현재 기독교 교인이다. 그건 단순히 부흥회의 영향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소녀 때문만도 아니었다. 필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이후에도 거의 일 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 수많은 일이 있었던 후였다.



의문이 꼬리를 물고

그러나 당시에는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나 많은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필자는 평범한 이성주의자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 수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믿지 않았던 것이며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전형적인 유교 문화권에서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필자는 기독교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믿고 있었다. 하기에 교회에서 듣던 설교 내용은 모두가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필자의 천성인 '따짐의 성격'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교회를 계속 나가려면 무언가 마음에 확신이 서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을 만나 철저히 따지기로 작정하고, 필자가 나가던 대구 JB 교회 당시 목회자였던, 북한 땅 황해도에서 월남하신 김XX 목사님께 상담 신청을 했다. 때는 토요일 오후였다. 이과 대학에 재학 중인지라 주중에는 그 시간 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첫째는 신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따지기 시작했다. 그분은 대화에서 '예수'라는 분을 내게 소개하면서 그는 실존했던 분이라고 했다. 물론 난 그것도 처음 듣는 일이었다. 집에 돌아가 참고 서적을 찾아보니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읽다 보니 공감되는 바도 있었다. 하지만 그 예수의 신성을 믿기는 어려웠다.

한 목자의 사랑

그리하여 필자의 목회자와의 상담은 거의 매주 토요일 오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너무도 의문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그 목사님이 필자에게 귀찮다는 표정을 주었다면 필자는 오늘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필자에게 너무도 자비롭고 정성스럽게 상담을 해주셨다. 사실 지나고 보니 큰 교회 목회자인 그분에게 토요일 오후 시간이 주일 설교 준비를 마무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시간인데 필자에 대한 상담에 몇 시간을 써 버렸으니 지금 생각하면 큰 결례를 한 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대학생인 필자를 자기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때로는 그의 작은 서재에서 수 시간을 마다치 않고 차근차근 자신이 믿는 바를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에 관해서도 정성껏 일러주셨다. 필자는 솔직히 그저 반신반의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목사님은 내게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성경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필자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의 의문이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어쩌다 도저히 그의 설명에 납득이 안 갈 때는 필자는 난색을 보이곤 했다. 그는 이럴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하셨다. "이 선생,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차차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라고 말이다. 필자는 그 목사님이 그저 참 좋은 분이라 믿었고, 뭔가 자꾸 그에게

로 이끌리었다. 그래서 사실 초신자로서 수개월은 '그분이 좋아' 교회를 나간 것이었다.

새로운 인생관

그러던 시간이 아마 거의 한 해는 흘러갔을 것이다. 갑자기 어느 순간 필자는 생에 처음 겪는 일대 심령의 대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진리로 다가와 나의 전체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제야 비로소 필자는 아! 나 스스로가 얼마나 '목이 곧은' 고집쟁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내겐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도 성경의 그 말씀이 생생하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진리로 여겨졌고,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은 그 여학생과 목사님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을 필자를 하나님 자신의 가슴에 안겨주시기 위해 사용해 주셨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있다. 마치 그 서정주 씨의 시에서처럼!

그렇다. 태초 이전부터 택정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적정한 때를 따라 성령님을 통하여 한 영혼을 깨우쳐 자기 품으로 불러주셨고, 생판 다른 새사람으로 바꾸신 것이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같은 모습의 나였으나 속으론 필자의 전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제야 필자는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나 꽃 한 송이조차 하나님의 피조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새 피조물의 역사는 내적으로 새로운 변

화를 가져다주었다. 갑자기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안식과 화평이 찾아들었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귀하게 여겨지며, 교회 예배가 그리워지고, 죄에 대한 한없는 통회로 눈물의 회심이 이어갔다. 새벽 4시가 되면 캄캄한 밤길을 걸어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를 찾았고, 은은히 들려오는 새벽의 밤공기를 깨며 울려 퍼지는 차임벨 찬송 소리 속에 '죄인 괴수라도 버리지 않은 주의 넓은 은혜 한량없네...'를 가슴 깊이 읊으며 교회를 찾곤 하였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회심(conversion)이라 칭한다. 이는 중생을 말하며 성령님의 역사로만 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를 가능케 하였고, 그러기에 이 모두는 나 자신의 어떤 그것과는 무관하게 전혀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신학자 보이스(Boice)는 '중생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 심령에 첫째, 믿음의 씨를 심겨 주시고 다음으로 그 믿음(하나님의 선물)에

신적 생명을 가진 그의 말씀의 씨앗을 주심으로 믿음 속에 새 생명(중생)이 싹트게 하신다'라고 하였다. 그 이후의 나의 삶은 하늘을 나는 것과도 같았다. 너무나 행복에 찬 삶이 시작되었다. 어리석었던 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또한 세상에서 당신의 귀한 도구로 쓰시고자 나에게 세상 지식 중 특히 사람의 생명을 돕기 위한 의학 지식을 배우는 기회도 주셨으며, 이를 위해 도미 후 선진 의학을 수련받을 기회마저 허락해 주셨다. 그뿐인가! 내가 외로워할 때였다. 나의 눈에 한 아름다운 처녀를 사모하게 하신 후, 비록 다소 가정의 반대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평생의 배필로 결혼까지 하게 하였고, 이에 더하여 알밤 같은 아들들을 셋이나 주셨다. 이 모두가 은혜가 아닌가! 하기에 지난날들의 이한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도하시는 섭리(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이치)는 오늘의 내가 있게 하였고, 또한 내일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품속에 나를 부르실 그 날까지 계속하실 것이다. | **불평동상**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신앙고백)



김홍석 은퇴집사

"예수께서 빌립보 카이사레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3, 15)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뤄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아직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됩니다. 내 삶에서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기쁨이 이전까지 내가 붙들었던 헛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합니다. 참 신앙인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현재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누구나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성공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은 세상에서 끝납니다. 잠시 좋을 뿐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 훌륭한 선생,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분명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해 충분하게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지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요 1:1, 14).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올바르게 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이십니다. 구원자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롬 3:10-18). 우리는 우리 죄의 결과로 마땅히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은 무한한 형벌뿐입니다(롬 6:23; 계 20:11-15).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구원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교회 참석, 의식 수행 혹은 특정 죄들을 짓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

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인격적인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건 당신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신앙과 불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진리는 둘일 수 없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 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총체적 구원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남은 삶도 어떤 어려운 상황과 고난도 이기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 불행동상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 14:6, 행 4:12)

과거는 미래에 의해 다시 쓰인다 [2]

물댄동산의 역사를 현재의 시점으로 새롭게 읽고, 더 나은 소망을 품으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연재되는 리뷰 글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더 깊이 연동될 수 있는 단서들을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제일교회 청년들에게 보내는 글

청년1부회장

제일 청년 여러분! 일단은 청년부에 나오십시오. 과거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에는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대구 땅의 부흥을 위해 우리 제일교회 청년들이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세에서 26세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청년1부에 여러분이 헌신하신다면 우리 교회에는 아니 대구 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헌신'이라는 부담되는 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일 아침예배(123부)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450여명으로 추산되는 바로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나와서 제일 청년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와 대구 땅을 향해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히려 저의 글이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청년부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청년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담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집회와 부별 성경공부가 주일날 있고(보통 3시간 반 소요),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때까지는 계속 나오시다가 대학 들어가고 바로 청년부에 나오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언젠가는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망설이고 계신 청년 여러분, 바로 지금 나오십시오.

1997년 물댄동산 11호에 실린 청년1부 회장의 글(일부발췌)

"제일교회 청년들에게 보내는 글(물댄동산 1997년 11월호)"은 당시 청년1부 회장이 대구제일교회와 대구 지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헌신과 회개를 바탕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청년들의 열정을 회복하길 강조하였다. 이에 오늘의 청년1부 회장은 공동체 회복에 공감하고, 덧붙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두의 사명감이라 호소하였다. 기성세대부터 MZ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개인의 영성을 강화하고, 소명의 확신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느껴진다. 주고받는 편지글 속에 단순히 인식 변화나 사회적 흐름을 찾기보다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배우고 존중하며,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다. <편집부>

과거로 보내는 편지

- 물댄동산 1997년 청년의 글을 읽고 -



윤지현 청년1부 회장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물댄동산 100호 발행을 기념하여 원고를 부탁받으며 약 25년 전 물댄동산에 실렸던 선배님의 귀한 글을 전해 받았습니다. 저는 이 답신을 쓰기 위해 그 글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고, 마지막 문장까지 읽기를 마쳤을 땐 선배님께서 딱 한 가지 거짓말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서론에서 선배님은 본인을 '글 잘 쓰는 달란트가 없는 제가...'로 소개하셨는데, 아

주 글을 잘 쓰시는 달란트가 있으셨고, 더불어 겸손함까지 갖추셨지 뭡니까. 그래서 정말 글 잘 쓰는 달란트 없는 제가 선배님의 서론을 살짝 인용하여 저의 답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글 잘 쓰는 달란트가 없는 제가 짧은 글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글을 이어 나갈까 합니다.’ (1997년 물댄동산 11호 ‘제일교회 청년들에게 보내는 글’ 중에서)

25년 전 선배님의 글 속에는 청년들의 청년부 예배 참석에 대한 권면과 청년들의 영적 부흥을 외치는 목소리가 담겨있었습니다. 80년대 폭발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와 청년들이 90년을 기점으로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 청년부 현장에서도 약해진 공동체성을 절실히 느끼며 다시 모이기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힘써 모이고, 그 안에서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답으로 ‘헌신’과 ‘회개’를 제시하며 막연하고도 큰 부담이 되는 답안임에도 헌신과 회개 없이는 ‘영적 부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담대히 권면하는 부분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날 그 글을 읽으며 헌신과 회개로 부흥하고자 했던 그 시절 청년의 뜨거움에 자극받음과 동시에 약해진 공동체성을 절실히 느꼈다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이 마주한 이 세상은 개인의 삶, 개인의 논리, 개인의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점점 멀어져 교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공동체성마저 흔들리고, 어쩌면 가정의 공동체성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 품공동체(대구제일교회 청년부)는 올 한 해 에스겔서에 기록된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여호와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성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회복을 외쳐야 할 숙제를 받은 건 정해진 누군가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 아닐까요.

헌신과 회개를 외치기 전에 선배님이 쓰셨던 한 문장.

“글 잘 쓰는 달란트가 없는 제가 짧은 글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글을 이어 나갈까 합니다.”

그 고백과 같이 저도 고백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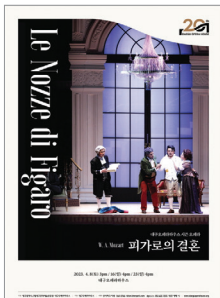
“잘 난 것 하나 없는 제가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나를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 **출정동상**

우리지역 문화·공연 활동 소개



제41회 필그림 미션콰이어 정기연주회

공연일시 2023. 04. 22.(토) 19:30
공연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공연문의 010-7250-0125
주 최 필그림미션뮤직센터
주 관 필그림미션콰이어
* 본교회 시온성기대지휘자 이재준 집사 지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일시 2023. 04. 08.(토) 15:00 / 16.(일), 23.(일) 16:00
공연장소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문의 053-666-6000 / 전화예매 1661-5946
주 최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주 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 본교회 호산나성가대 강수연 성도 수잔나 Sop. 출연



대구시립교향악단 <제493회 정기연주회>

공연일시 2023. 04. 20.(목) 19:30
공연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문의 053-250-1475
주최/주관 대구시립예술단/대구시립교향악단



명기明器, 예禮를 담다展

개최일시 22.10.05.(수) ~ 23.10.09.(월) 9:00 ~ 18:00
개최장소 국립대구박물관 상설전시관
문의 053-768-6051
주최/주관 국립대구박물관
* 매주 월요일 휴관 / 입장마감 17:30

성인 예방 접종의 실제



박문호 안수집사¹⁾

인류의 수명을 급격히 연장할 수 있었던 3대 발명으로는 보통 상하수도, 항생제, 백신의 개발을 꼽습니다. 조선 시대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왕들의 경우가 46세, 양반이 51~55세, 상민과 노비의 경우 30대 초반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35세 정도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3.5년임을 생각해 봤을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백신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천연두와 소아마비를 퇴치했으며, 홍역도 굉장히 드문 질병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백신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중 몇몇 분들만의 고유한 지식이었고, 대부분의 의사들도 백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국가적 관심도 약했지만,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의사들뿐 아니라 전 국민이 백신 전문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 모두 백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유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많은 부분의 백신이 무료 필수 예방 접종화되었고,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에서 백신을 하게 되면서, 국민이 과거보다 훨씬 쉽게 백신을 맞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인터넷과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상용화되면서 백신에 대한 정보도 이제는 일반화되었는데, 스마트폰에서 “예방접종도우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외로의 선교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시라면, 일본뇌염(성인은 평생 1회), 장티푸스(3년 간격으로 2회), A형 간염(만 40세 이상은 항체 음성일 때 접종 권장), MMR(홍역-볼거리-풍진, 1개월 간격으로 2회) 등의 접종이 필요할 수 있는데, 꼭 출발 1~2개월 전에는 질병 관리청 홈페이지에서 감염병-해외 감염 정보-해외 감염병 NOW-국가별 감염병 예방 정보를 클릭해서 본인이 방문할 나라를 검색해 백신이 있는 감염병을 확인하고 백신을 맞아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한 두 번만 맞으면 평생 다시 맞지 않아도 되므로, 앞으로 해외여행이나 예상치 못한 질병의 유행도 잦아지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백신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예방접종 정보-예방접종 알아보기-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성인 예방접종 일정표로 들어가시면, 질병 관리청에서 발간한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홍보출판부 부부장

2018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제2판을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1)과 (표2)는 성도 여러분께 요긴할 만한 것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참고로 대상포진 접종은 만 60세부터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세 가지 약제 모두 만 50세 이상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올해는 58년생부터)은 국가 무료 접종인 폐렴구균 23가(PPSV 23)가 가능하며,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셔서 최소 접종 간격(표3)을 띄우고 폐렴구균 13가(PCV13)를 한 번 더 접종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최근 백일해(백일동안 기침을 하게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Tdap 접종이 보편화되었는데, 임산부(임신 27~36주경에 접종 권고)와, 신생아들을 돌보셔야 하는 어르신들은 본인과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접종을 권장합니다.

특히 일터에서 흡이나 농기구들을 많이 만지시는 분들도 파상풍 예방을 위해 Tdap 접종이 권고됩니다. 과거 접종력을 모르시는 경우나 1958년 이전 출생자(국내 DTP 접종 도입 시기)는 0, 1, 7개월에 걸쳐 3회, 이 중 한 번은 백일해가 포함된 Tdap으로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되시기를 바랍니다. | **울려통상**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만 19~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64세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¹⁾	Flu	위험군에 대해 매년 1회				매년 1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Td	Tdap으로 1회 접종, 이후 매 10년 마다 Td 1회					
폐렴구균 ²⁾	PPSV23	위험군에 대해 1회 또는 2회					1회
	PCV13	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무비중, 뇌척수액누출, 인공와우 이식 환자에 대해 1회					
A형간염 ³⁾	HepA	2회	항체검사 후 2회		위험군에 대해 항체검사 후 2회 접종		
B형간염 ⁴⁾	HepB	위험군 또는 3회 접종/감염력이 없을 경우 항체 검사 후 3회 접종					
수두 ⁵⁾	Var	위험군 또는 접종력/감염력이 없을 경우 항체검사 후 2회 접종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⁶⁾	MMR	위험군 또는 접종력/감염력이 없을 경우 1회 또는 2회 접종 : 기침 여성은 풍진 항체 검사 후 접종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HPV	만 25~26세 이하 여성 총 3회					
대상포진	HZV						1회
수막구균 ⁷⁾	MCV4	위험군에 대해 1회 또는 2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⁸⁾	Hib	위험군에 대해 1회 또는 3회					

연령 권장 : 연령의 증가가 없는(과거 감염력이 없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불확실) 대상 연령의 성인에게 권장됨
※ 연령권장의 경우에도 해당 질병의 위험군(각주 참고)에게는 접종을 더욱 권장함

위험군 권장 : 특정 기저질환,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질병의 위험군에게 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무료접종

(표1) 성인 예방접종 일정표

사용백신	최소 접종 간격
PCV13→PPSV23	8주
PPSV23→PCV13	1년
PPSV23→PPSV23	5년

(표3) 폐렴구균 접종 백신별 최소 접종 간격

구분	당뇨병	만성 심혈관 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항암 치료 중인 고환암	이식 이환 면역 억제제 사용	장기 이식	조혈 모세포 이식	무비중	HIV 감염	임산부
인플루엔자 (Flu)												
폐렴구균 (PPSV)												가
폐렴구균 (PCV)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Td)								Tdap	Tdap			나
A형간염 (HepA)								대				
B형간염 (HepB)												
수두 (Var)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MMR)												
대상포진 (HZV)												
수막구균 (MCV4)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폴리오(PV)												

가) 폐렴구균 위험군의 경우 가능한 임신 전 접종을 권고하나 임신 중 폐렴구균 감염예방백신이 필요시 PPSV23으로 접종 가능
나) 임신 전 접종력이 없는 경우, 임신 중 27~36주 사이 접종, 임신 중 접종하지 못한 경우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
다) 간이식 환자에서는 A형간염 접종이 필요
라) 이식한지 24개월을 초과하였고, 이식면대속주반응이 없는 경우에 접종을 고려할 수 있음

(표2) 질병(상황)에 따른 성인 예방접종 권장표

‘쇼생크 탈출’은 구원인가



이주하 협동장로¹⁾

1994년에 개봉된 쇼생크 탈출(원제목 : The Shawshank Redemption)은 프랭크 다라본트(Frank Darabont) 감독의 영화인데 호러 소설로 인기 있는 스티븐 킹(Stephen Edwin King, 1947~)의 중편소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Rita Hayworth and The Shawshank Redemption)’을 각색한 것이다.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대본을 쓰고 연출하였으며, 팀 로빈스(Tim Robbins)가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 역을, 모건 프리먼(Morgan Freeman)이 앤디를 지켜보는 관찰자 레드 역을 맡았다. 레드 역할을 하는 모건 프리먼이 또한 이 영화의 나레이터를 맡아 ‘나레이터란 바로 이런 것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개봉 당시, 적자를 겨우 면할 만큼의 반응이었지만 계속해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다시 보아야 할 영화’ 1위로 랭크될 만큼 진한 감동을 주는 영화이다. 142분 런닝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은, ‘다시 보면 볼수록 더 좋은 영화’이다.

쇼생크 탈출은 원제목이 말해주듯 쇼생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앤디와 레

드를 앞세워 이야기한다. 아내와 정부(情夫)를 살해했다는 죄명으로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된 앤디는 다른 죄수들의 화법처럼 변호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갇히는 신세가 된 재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진술한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총을 들고 쫓아 가기는 했지만, 그 총을 강에 버렸을 뿐 다른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 앤디는 자신의 죄를 부정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험악한 감방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우연히 교도관과 교도소장의 세금 면제와 재산 도피를 조력하는 과정에서 노튼 교도소장의 신임을 얻게 된다. 앤디는 교도소 내 도서관을 확대 개설할 만큼 감방 생활에 익숙하게 적응한다.

영화는 법정 장면을 등장시키면서 앤디가 교도소에서 평생 살아야 할 만큼의 큰 죄가 있음을 논증한다. 법정은 앤디의 아내가 정부(情夫)와 함께 껴안고 죽었을망정, 그 부정의 사실이 그들을 죽일 만큼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며 앤디가 유죄(crime)임을 판시한다. 이 범죄에 대해 영화는 앤디가 자

1) 물댄동산 편집위원



신의 아내를 외롭게 하여 그를 바깥으로 내몰아 죽게 하였다고 고백하는 시점에서 사랑하지 않은 우리들의 또 다른 유죄(sin)에 대해 생각하도록 촉구한다.

앤디는 무시무시한 살인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이야기를 교도소 한 청년 토미(Gil Bellows 분)로부터 듣게 된다. 토미는 이전 교도소 동기에게서 ‘앤디란 작자가 자기 대신에 아내와 정부(情夫)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뉘였다’고 자랑삼아 늘어놓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앤디는 이 사실을 노튼 교도소장에게 말하지만 돌아온 것은 청년 토미의 죽음뿐이었다. 이는 앤디에게서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증인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영원히 사라진 셈이다.

앤디의 친구인 레드(레드)는 가석방이 거듭 거부된다. 영화는 배심원들 앞에 선 레드(레드)가 ‘거부(rejected)’되는 장면을 거듭해서 보여준다. “참 이상하지, 이 감옥 벽들 말이야,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곧 적응하게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엔 의지하게 되거든.” 레드(레드)는 체념한다. 젊은 시절에 저지른 죄의 벽이 레드(레드)를 사



방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레드(레드)는 이 상황에서 단념을 선택하면서 현재의 교도소에 자신을 잘 맞추어나간 반면, 앤디(앤디)는 쇼생크 교도소를 은밀히 탈출하려는 희망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앤디(앤디)는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외쳤으리라.

앤디(앤디)는 레드(레드)에게 멕시코의 바닷가 마을 지후아타네호(Zihuatanejo)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중에 레드(레드)가 출소하면 텍사스 포트행콕으로 찾아와 메시지를 읽어보라고 부탁하면서 서로의 우애를 다지기도 한다. 영화는 앤디(앤디)가 16년 전 레드(레드)에게서 구했던 조그마한 암석 망치와 여배우 포스터를 이용해 벽을 뚫어 쇼생크 교도소를 탈출하는 장면에서 절정을 치닫는다. 탈옥 당일, 앤디(앤디)는 벽을 뚫은 지점으로 부터 수백 미터나 떨어진 하수구를 통과하면서 교도소 밖의 광명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데, 결국 성공한다.

레드(레드)는 40년 형기를 마치고 가석방되지만, 교도소 동기 브룩스(브룩스)처럼 잘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레드(레드)는 앤디(앤디)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주거 제한 구역을 이탈해 텍사스 포트행콕을 찾



게 되고, 이후 멕시코 지후아타네호 마을에서 앤디와 재회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이 영화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교도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사는 교도소는 돈, 명예 등으로 우리를 종노릇 하게 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sin)이다. 앤디를 포함해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살인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이 유죄의 교도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쇼생크 탈출’ 과 같은 필사적인 탈출로 이룩될 수가 있을까? 이 영화는 사랑하며 살지 않는 모든 인간 유죄자들에게 진정한 ‘쇼생크 탈출’ 의 방법을 찾아보라고 외친다.

영화는 앤디가 교도소에 들어올 때 노튼 교도소장이 앤디를 수색하는 중, 움켜쥔 성경을 창살 너머로 돌려주면서 ‘잊어버렸군, 자네한테서 이걸 뺏고 싶진 않아, 구원이 이 안에 있으니까’ 라면서 또 다른 구원의 복선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영화는 노튼 교도소장을 돈과 명예에 끊임없이 종노릇 하는 자멸적



인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노튼이 말하는 구원이 자칫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것과 같은 것이면 이것 또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문한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1서 4:10-11)

고맙고 고마베라



허정자 권사¹⁾

왁자지껄 정신없이
해먹이고 하다가 모두 떠나고
또 혼자 남았네

보파리 보파리
물살까 다시 보고 또 메어서
빠뜨리고 가는 것 없나 살피며
새끼들 알뜰히 챙겨
잘도 떠나네

암 그래야지 하면서도
빠뜨리고 가는 건 어미인지 모르고
당연한 척 버려두고 그냥 가네
손 흔들며
몸 건강히 잘 계시라고 하면서도
옆에 있는 각시만 쳐다보고 웃는
저 팔불출

외로움이 산더미 같다고 할지라도
돌돌 뭉쳐 깔깔대며 가는 모습
고맙고 고마베라

1) (호 : 需炫) 수현 허정자 시인은 경북 영일 출신으로 2004년 한맥으로 등단했다. 현재 대구 문인협회 회원, 국제 펜 대구지역 이사, 대구 여성 문학회, 경산 문인협회 이사, 대구 기독교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사단법인 국제문화 예술협회 시 부문 허난설헌 본상과 송강 문학 예술상을 받았다.



청년이 추천하는 맛집

우리 교회 주변 핫플레이스 소개 [1]

교회 주변에서 소모임 혹은 식사교제를 할 때 함께 방문하기 좋은 카페 혹은 식당을 소개합니다. 참고하셔서 더욱 즐겁고 은혜로운 식사교제, 나눔이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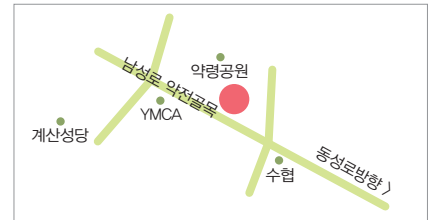


김원진 청년
(물대동산 편집위원)



라이첸

베트남 음식점
중구 남성로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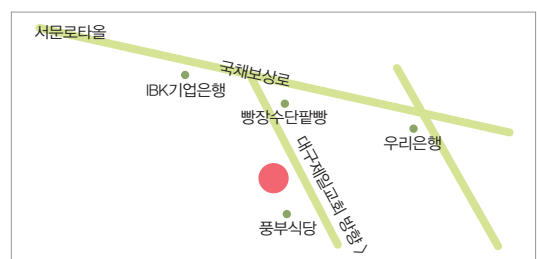
가게 내부가 베트남 분위기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현지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쌀국수와 칠리새우 라이스가 아주 맛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분들이 직접 요리하셔서 보장된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별점도 5.0에 가까워 절대 실패는 없을 맛집이라고 생각해요!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로맨스바바

디저트 카페
중구 국채보상로 4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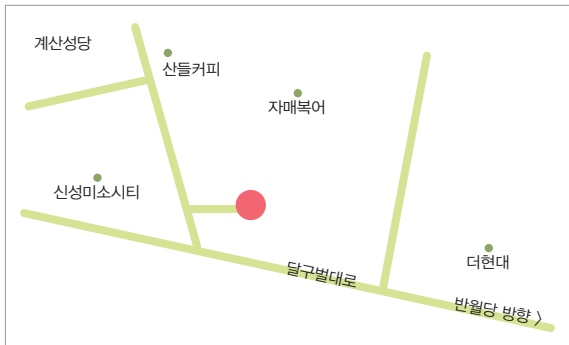
한옥처럼 꾸며져 있는 카페로, 복고풍의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교회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 접근성도 좋아요. 가게 인테리어가 가게 장식장, 복고풍 가구들로 되어 있어 여러 연령대가 방문하기 좋습니다. 또한 가게가 넓고 단체석 예약이 가능해서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시그니처 음료는 아이스 만년설, 아몬드 라떼 등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꼭 딸기 브라우니를 추천합니다!



라미아 에밀리

브런치 카페
중구 달구벌대로 2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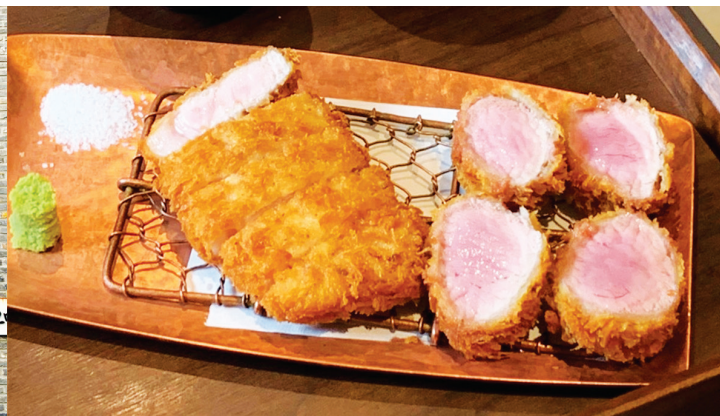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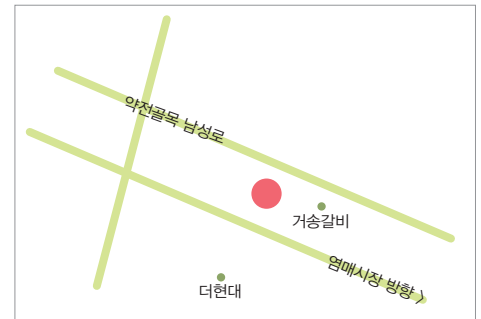
더 현대 옆 골목에 있는 카페로,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브런치부터 리조또 같은 식사류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는 브런치 카페예요. 넓은 정원 좌석이 있어서 따뜻한 봄가을에 방문하기 좋습니다. 편안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좌석이 특징이라 가볍게 식사교제 하기가 좋습니다. 바질 리조또를 추천해요!



기리 반월당점

돈카츠 식당
중구 남성로 38

안심 돈카츠가 맛있는 맛집입니다. 더 현대 바로 뒷골목에 있어 교회에서 걸어서 가기도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테이블 간 간격이 넓고 가게가 2층으로 구성되어있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 좋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가게가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편하게 방문하기 좋은 것 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1부 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2부 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 (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아담스홀
구역장 회	(화) 오전 10:00	본당지하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3층)
초 등 1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6층)
초 등 2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7층)
초 등 3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4층)
초 등 4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6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베어드홀
청 년 1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2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장 년 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 (4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 가 족 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 (본당 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 (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102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원고 분량

A4 1.5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접수 마감

2023년 5월 27일 (토) 까지

* 원고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E-mail : fch_pub@naver.com

이전 다음메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고 누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는 홍보출판부 (본당 4층), 행정실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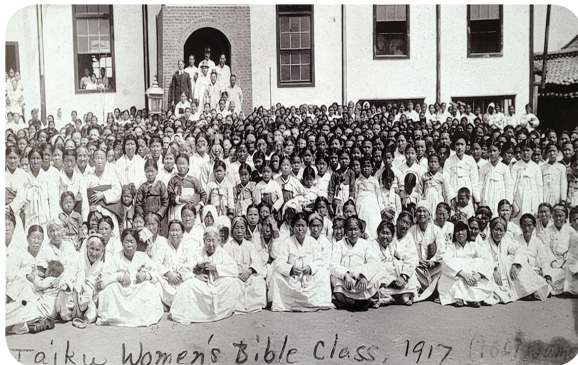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aiku Women's Bible Class, 1917 (1917.10.10)



1958. 7. 21.
제1회 정기학예회



제1회 정기학예회



예수 큰 잔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2532615@hanmail.net www.firstch.org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